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106 1983년 4월 13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April 13, 1983

APR 13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카 경협회의 개막

데이비스수상 연설, 양측 50여명 참석

한·카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연례회의가 11일 토론토 포·시즌즈 호텔 리전시·웨스트·볼룸에서 양측 대표 50여명과 윌리엄·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 존·에어 온타리오주 총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이날 하오 1시25분 바실·베네토 캐나다측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오찬을 겸한 개막식에서 초청연사였던 데이비스온타리오주수상은 온타리오주의 교역량은 82년도에 캐나다 전체 무역량의 37%를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한·카경제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온타리오주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이비스수상에 앞서 연설한 구평회한국측의장은 한국상품에 대한 캐나다의 강력한 보호주의정책은 양국간의 경제관계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는 자국상품을 보호하기위해 12개이상의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등 수입규제를 적용, 한국의 대캐나다수출확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베네토 캐나다측 의장도 이날 환영사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확대및 경제성장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헤드·테이블인사로는 이규현대사, 존·에어(John Aird)온타리오주총독, 고든·워커 온타리오주 산업성장관, 메트로·토론토대표로 데니스·플린 이토비콕시장, 토론토시 대표로 잉·호프 시의원이 참석, 각기 짤막한 환영연설을 했다.

개막식이 끝난뒤 구의장은 이번 회의는 실질적인 큰 효과보다는 한·카양국 경제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는 기초정비에 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한·카경협 2차회의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한뒤 폐막될 예정이다.

앞서 10일밤 한·카대표는 양측 의장부처가 베푼 리셉션에서 서로 인사를 교환했고, 이어 한국대표단들은 모두 한국관에서 저녁식사를 즐기고 한인상가를 구경했다.

★ 회의장 낙수 ★

▲평소 유머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스 수상은 이날 연설전 이대사에게 "최동원선수가 블루제이스팀으로 3~4년간 뛰어본다는 것은 최선수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전해달라"고 조크함으로써 은근히 한인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를 과시.

그는 식이 끝난후 혹시 블루제이스로부터 최선수를 데려와 달라는 압력적(?)협조요청을 받았었냐는 질문에 "이대사가 야구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농담이었을뿐"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수상은 연설전 구의장에 1차회의에는 자신이 초청되지 않았었지만 3차회의때는 꼭 좀 초청해달라고 요청.

식이 끝난뒤 환담에서 구의장이 "초청한다면 한국을 방문하겠느냐"고 묻자 그러겠다고 대답, 구의장은 정식으로 초청을 주선해봐야겠다고 말하기도.

▲이날 베네토의장이 연설전 단상에서 구의장의 전임인 초대 한국측의장 유창순씨가 한·카경협의장이 된지 5개월만에 한국의 수상이 됐다고 말하자 파이프를 문 데이비스수상은 큰소리로 "베네토 당신은 도대체 뭐했소"라고 조크. 베네토씨가 다시 "수상 당신이 의사를 결정하면 나도 내 거취를 결정하겠소"라고 응답, 장내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11일낮 제2차 한·카경협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왼쪽 끝). 그옆이 한국측의장 구평회씨, 존·에어 온타리오주총독 및 오른쪽이 베네토 캐나다측 의장.

"주택가격 내년부터 오른다"

— 주택경제전문가 예상 —

침체일로를 달리던 주택가격이 내년부터는 호전되어 극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주택경제전문가인 후랭크·클레이톤씨가 11일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을 2차대전후 베이비·붐(Baby Boom)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년이 되어 안정을 이루면서 주택소유의 요구도가 높은 것과 지난 2-3년간 부진했던 건축업계가 경제복구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클레이톤씨는 이 추세가 86년초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83년에 $15만짜리 주택이 84년엔 $17만, 85년에 $19만5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건설의 추세는 별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지난 몇년간 정부가 여러곳에 각종지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 주택산업 분석가는 미국도 역시 주택사정이 호전될 것이며, 85년에 가면 약 190만채이상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주택건설자협회의 책임경제전문가인 마이클·서미크래스트씨 역시 이같은 이유를 긍정하며, 미국의 이자율이 금년여름경에 1.5%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도시개발위원회의 존·샌더스키부회장은 캐나다도 미국의 회복세와 같게만 되면 건축업계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주택산업의 발전추세는 지금껏 비슷한 형편이었다.

북한 부주석에 임춘추 임명

최고인민회의, 김정일 임용않아

(동경 7일 외신) 공석중이던 북한 부주석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임명될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정치국원 임춘추가 임명되었다.

북한 중앙통신은 7일 평양에서 폐막된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치국원이자 중앙인민회의 사무국장인 임을 부주석으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세명으로 되어 있는 부주석자리는 지난 1월 강양욱이 사망한 후 한자리가 공석중이었다.

〈오늘의 시세〉

금(런던 하오 FIX)	$525.63/oz
은(토론토)	$13.85/oz
캐나다 1달러	US$0.8119
미 화 1달러	CAN$1.2317
원화·캐네디언달러 교환율	
(서울 외환은행 전신환 매입/매출)	619.40/622.52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로렉스 오메가시계 45% ~50% 할인
귀국선물
은하보석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새 연재 예고〉

중편소설 「혼 돈」

글·이태준 그림·최미정

캐나다 교포문화계에서 역량있는 소설가로 정평이 있는 이태준씨(캐나다한국문협 부회장)의 역작소설 「혼돈」을 4월13일자부터 연재합니다.

이씨는 〈캐너더뉴스〉시절, 본지에 「십자가」, 「감나무집 딸들」, 「허주사 캐나다방문기」, 「블루어·스트릿의 하루」, 「상규」, 「합화」등 여러편의 단편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삽화는 한국시절부터 잡지계에서 삽화를 그려온 최미정씨가 맡아서 수고하시겠읍니다.

◆이 태 준씨

◆최 미 정씨

작가의 말

이민생활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더구나 연재소설을 쓰는 일은 너무 벅찬 일이다.

고달픈 나날의 틈을 쪼개어 구상하고, 테마와 줄거리를 짜고, 한편의 작품으로 엮어 나가는 과정은 정말 피땀나는 노작이 아닐 수 없다.

글이 제대로 풀려 나가지 않을 때에는 미칠 것같은 짜증과 몸부림이 일곤한다.

이번작품 「혼돈」에서 다룬 주안점은 이민생활자의 자기모순과 세대간에 나날이 넓어져만 가는 거리감—부모들은 돈벌이에 급급하며 가정도 자녀도 돌볼 겨를도 성의도 결여된 그 망각의 저편에서 이민2세들은 방향설정도 제대로 못한채, 자칫하면 잡초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가고 있는 우리의 현장을 묘사—선의의 고발로 "이래서야 되겠는가?"하는 문제를 던져주려는 의도에서 붓을 들었다.

이번 작품을 알뜰한 삽화로 장식해 주기로 약속 한 최미정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되살펴 보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이범석 외무 訪美

슐츠국무장관 초청으로

(서울12일=연합)외무부는 12일 이범석외무부장관이 오는 27일부터 5월7일까지 슐츠미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29일 슐츠장관과 만나 국제정세와 한국통일문제, 한반도의 현안문제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또한 방미중 이 장관은 와인버거 국방장관, 의회지도자들과도 면담하며, 워싱턴과 LA의 교포지도자들과도 만날 예정.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북괴군사요원 니카라과에 주둔

산디니스타정권 지원…월드·리포트지 보도

(워싱턴11일=연합)미국의 시사주간지 US 앤드 월드 리포트는 18일자판에서 북한이 소련과 큐바의 군사지원을 받고있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에 특별군사지원을 하고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근입수된

이 잡지는 최근 입수된 미정보자료를 인용, 3,000명의 군사고문을 포함한 큐바군 8,000명과 소련, 동독, 불가리아, 북한으로부터 온 군사전문요원들이 산디니스타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니카라과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현재 북한군사요원의 숫자를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한인신용조합)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533-9387~8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김명규
편 집 인: 김운영
인 쇄 인: 박점서
광 고 국 장: 송광호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캐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622 5147

'83년도 새봄맞이
새봄 전품목 30%~50%할인 판매
●기간: 4월15일~23일
전품목 가정용품 숙녀의류 신사·숙녀용품 스포츠·레저용품
ㅁ테스트 쵸이스커피 $5.49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10일현재 $125,403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액

한인회관 확장이전모금이 83년 4월10일 현재 $125,403에 달했다.

11일 확장이전위의 조한철 위원장은 캐나다 외환은행에서 2만달러를 약정한 것을 비롯, 신용조합이 1천달러등 교민 금융기관이 그 이익금으로 확장이전모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실협파티에서 복권 1등상으로 포니를 탄 박광철 한인회 부이사장 부인 박경희씨의 1천달러, 케네디와 쉐퍼드에서 각종 기구대여업(Rental Business)을 경영하는 박병원씨의 1천달러도 확장이전모금에 큰 활력이 돼 주었다고 말했다.

최근 기부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창식 $50
황순일 $100
김 C K $20
강찬영 $300
한상훈 $500
김동운 $500
김남집 $500
우희두 $500
허종식 $100
임정남 $50

Y회관 오픈·하우스

40여교민 관람

Y회관 토요오후 프로그램을 위해 6백여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토론토한인 YMCA(총무 김창열)의 회관 오픈·하우스에는 약40명의 교민이 참석, 체육및 오락시설을 구경했다.

9일하오 5시30분 스포츠복 차림으로 자녀들을 동반, 참석한 교민들은 체육관에서 코치의 지도에 따라 체조및 트랙·조깅으로 몸을 풀은뒤 수영, 배구, 스쿼시, 탁구, 배드민튼등을 즐겼다.

오픈·하우스날은 전시설이 무료로 공개됐다.

컬리지와 도버코트 남동쪽 코너에 위치한 웨스트·엔드·Y회관은 김총무와 구상회 메트로·토론토 YMCA 이사의 오랜 교섭노력끝에 매주 토요일 하오 6시부터 한인전용으로 사용하게 됐다.

옷장, 샤워장, 월·풀등을 구비한 이Y회관은 종합체육관으로는 룸·풀라스 시설을 갖추었다는 중평을 듣고 있다.

회원이 되려면 연간 사용료 성인$50, 부부$95, 노인및 학생 $30, 어린이$25를 납부해야한다.

캐나다 실업자 수

165만8천명

캐나다 통계국은 3월말 현재 165만8천명의 실업자수를 기록하여 평균 12.6%의 실업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2월에 비해 73,000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중 각주의 실직율은 다음과 같다.

뉴파운드랜드 20.3%, 노바스코시아 16.1%, 뉴번스윅 14%, 브리티쉬·콜럼비아 14%, P.E.I 12.7%, 온타리오 11.4%, 마니토바 9.7%, 사스카추완 7.4%, 퀘백주 14.6%이다.

대규모 데모준비

메트로 노동위, 실업증가 항의위해

지난달 캐나다전역의 실업자수가 1,658,000명에 달하게 되자 메트로노동위원회(Metro Labour Council)는 18만명의 회원을 동원하여 대규모 실업방지 캠페인을 벌일 준비를 하고있다.

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인 마이켈·레이온스씨는 12일 전회원들에게 실업에 대한 개인경험, 의견및 해결안과 현경제위기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온스씨는 이어 전화인터뷰가 끝나면 연방의회의사당앞에서 대규모 성토대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캐나다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메트로·토론토의 실업자수는 176,000명으로 실업율이 10.8%에 달했다.

6.2% 하락

82년도 공업생산성

(오타와)지난해 캐나다의 공업생산성은 40여년내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da)는 12일 82년도의 캐나다공업생산성 하락폭은 6.2%로 1946년 생산성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폭이라고 밝혔다.

〈현대적 속담풀이〉 — 애증의 함수 —

『미운사람 고운사람』

오 강 남 박사(종교학)

「미운사람 고운데 없고 고운사람 미운데 없다」는 속담을 들을때마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중국 위나라에 마자하(彌子瑕)라는 신하가 있었다. 그는 임금의 지극한 총애를 받고 있었다. 하루는 임금과 함께 궁전뜰을 거닐다가 땅에 복숭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워서 한입 먹어보니 너무나도 맛이 있었다. 먹던 복숭아지만 임금께 바쳤다. 임금은 이 신하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것도 참고 남은 것을 자기에게 바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먹었다.

어느날 밤 미자하는 그의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전갈을 받았다. 급해서 임금의 허락을 받을 겨를도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고 어머니의 병상을 향해 달렸다. 국법에 의하면 임금님의 수레를 함부로 타는 것은 사형감에 해당하지만, 임금은 그 신하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함을 가상히 여기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

해가 바뀌고 임금님의 마음도 바뀌어, 이제 미자하를 미워하게 되었다. 충신 미자하는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임금에게 바칠정도로 무엄한 신하, 임금님의 수레를 허락도 없이 훔쳐탄 무법의 신하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결국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우리 범속한 인간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을 한번 이쁘게 보면 그의 생긴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웃는 것, 걷는 것, 모두가 이쁘게 보이고, 한번 밉게 보면 이 모든것이 밉상스럽게만 보이기 마련이라고 한다.

순이가 이쁘게 보일땐 「이쁜 순이가 이쁜 사과를 아삭아삭」먹는데, 일단 밉게 보이면 「미운 순이가 미운 사과를 어석어석」먹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A라는 사람을 놓고 김씨는 그가, (1)자상스럽고, (2)겸양하고, (3)용감하고, (4)신념이 있고, (5)정직하고, (6)성실하고, (7)끈기가 있고, (8)쾌활하고, (9)달변이고, (10)유머러스하고, (11)적응력이 있고, (12)침착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씨는 그가 (1)좀스럽고, (2)째째하고, (3)만용을 부리고, (4)고집불통이고, (5)융통머리가 없고, (6)우직하고, (7)미련하고, (8)가볍고, (9)입이 싸고, (10)싱겁고, (11)무원칙하고, (12)고지식한 사람으로 본다.

동일한 행동, 동일한 태도가 보는 사람의 마음상태에 따라 이쁜 것으로도 보이고 미운것으로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종이 미우면 가사도 미워지지만」, 「마누라가 이쁘면 처가집 주춧돌도 이쁘게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가사나 주춧돌의 잘잘못이 아니라 더 큰 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본적 자세, 주관적 입장이 더욱 문제다.

이런 기본적태도 여하에 따라 장점이 모두 단점으로 보이게도 되고, 단점이 모두 장점으로 보이게도 된다.

우리가 남을 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선입견을 절대화해서 그들을 판단할 것이 못된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놈-살릴놈」으로 딱 갈라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사람 자체가 죽일놈이냐 살릴놈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그를 「고운님」으로 보기로 했느냐 「미운놈」으로 취급하기로 했느냐를 냉철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리라.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210>

헤로인 ⑤

여자의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한시간쯤 지나 그들은 영등포역에 도착했다.

새벽 4시30분이었다.

그들은 길가에 차를 버리고 대합실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대합실 앞으로 사라지자 자동차 트럭크가 가만히 열렸다. 그리고 안에서 한 사나이가 기어나왔다. 지나가던 택시운전사가 그것을 보고 차를 세우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사나이가 노려보자 운전사는 택시를 슬금슬금 몰고 가버렸다.

그는 큰 키에 무룩한 파카 차림이었다.

그는 캡을 눌러쓰더니 어깨를 크리고 대합실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는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는대신 창가에 붙어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6시30분에 첫차가 있어요.」

여자가 일인에게 말했다.

대합실 안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두시간동안 어디서 기다리지?」

「추운데 여관에라도 들어가요.」

「위험하지 않을까?」

「두시간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사내는 좋다는듯 끄덕였다.

그들이 대합실을 나오자 캡의사나이는 재빨리 비치지 않는 어둠 속으로 몸을 가렸다.

그들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을 꾸불꾸불 걸어가다가 여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윽고 안으로 들어갔다.

캡의 사나이는 15분 후 그 여관으로 들어갔다. 2층 여관이었다.

그는 방을 잡은 다음 종업원에게 팁을 두둑히 내놓았다. 소년은 처음받아보는 많은 팁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금 전에 두사람들어왔지?」

「네, 남자하고 여자가 들어왔읍니다. 남자는입을마옥하던데요.」

「그래?몇 호실에 들었지?」

「2층 6호실에 들었읍니다.」

「그 옆방 비어있나?」

「5호실이 비어있읍니다. 그리로 가시겠읍니까?」

「아니야. 그 사람들 나가게되면 나한테 연락해줘. 즉시 알려줘.」

「네, 알았읍니다. 염려 마십시오.」

소년은 이유 같은 것은 묻지도 않았다.

「이건 비밀이야.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일이야. 알았어?」

「네, 알았읍니다.」

손님의 사나운 눈초리에 소년은 어깨를 움츠렸다.

2층 6호실에서는 어느새 명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적막에 싸인 새벽녘에 갑자기 여인의 숨넘어가는 신음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자 여기저기서 잠을 깬 손님들이 수런거리기 시작했다.

캡의 사나이는 어둠 속에 누워 있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빠도는 어둠침침했다. 화장실쪽에서 여자 오줌누는 소리가 쏴아하고 들려왔다.

그는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이 낡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자의 신음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朴 男 그림

"토론토는 더이상 백인도시 아니다"

유나이티드웨이 회장 에트닉비중 강조

캐나다의 복합문화주의 정책을 보다 잘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캐나다사회의 각급기관은 에트닉 커뮤니티의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해야한다고 유나이티드·웨이회장인 고든·크레시씨가 주장했다.

크레시씨는 8일 욕대학에서 개최된 대도시 학교구역에서의 에트닉정책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각급기관들은 이제 토론토가 더이상 앵글로·색슨의 도시가 아님을 수긍해야할 것이며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나이티드·웨이도 그 성격이 변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는 온타리오주의 교육정책상 이민자들의 문화적비중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욕대 달톤·키호교수가 주관한 것이다.

크레시씨는 온타리오의 각학교중 토론토와 노스·욕 교육위원회만이 에트닉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쓰고 있으며, 메트로·토론토 이외지역은 특히 에트닉문제에 대처할 방도를 거의 쓰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토론토시 교육위원회소속 학생중 60%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가정의 자녀였다.

메트로·토론토의 모국어 인구분포도 81년도판에 따르면 메트로·토론토 전체 인구중에서는 68%가 영어가 모국어이며 50만명은 영어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쓰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으로의 여행 출간

재미 한인 정치학자 7인 체험 보고서로

재미 한인정치학자 7인이 81년 북한방문시의 관찰과 체험을 토대로 「북한으로의 여행」(Tourney to North Korea)이라는 종합 보고서를 출간했다.

중공을 경유, 북한에 입국했던 이들 학자들은 언어 장벽 없이 북한의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요소들을 방문했으며 미국에 돌아온후 집필을 분담 엣세이 형식으로 원고를 작성, 최근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극동연구소를 통해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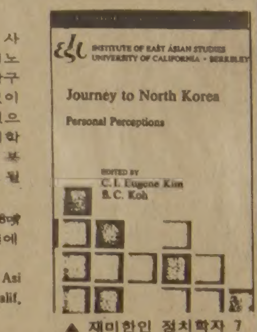
김총익 교수, 고병철 교수가 편집을 맡은 이 책의 집필진과 제목은 다음과 같다.

●서론(김총익) ●개인우상화와 지도자 계승문제(고병철) ●북한 생활의 경제 측면(이채진)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양성철) ●주체 사상(박한식) ●한국통일의 잇슈(길영환) ●북한의 자화상(이만우) ●결론(고병철, 김총익).

이 보고서 편자의 한 사람인 고병철 박사(일리노이대, 시카고 써클)는 학구적인 입장에서 편견없이 북한을 관찰하여 보고했으므로 정책 입안자, 정치학도는 물론 일반인들의 북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총 152페이지에 사진 8매를 삽입한 이책은 10달러에 구입할수 있다.

주문은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 Berkley, CA, 94720.



▲ 재미한인 정치학자 7인이 북한에 대해출간한 『북한으로의 여행』

돈벌이 잘하는 기관

뱅크·오브·캐나다, 지난해 이윤 19억달러

캐나다의 중앙은행인 「뱅크·오브·캐나다」는 지난해 무려 18억7천만달러의 이윤을 기록, 연방정부 경제기관중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뱅크·오브·캐나다가 이같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된 이면에는 일반 기업체들이 갖지않은 몇가지 특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캐나다화폐를 찍어내는 독점권이고, 둘째로는 캐나다의 일반시중은행들이 뱅크·오브·캐나다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해 두어야 하는 의무조항이다.(뱅크·오브·캐나다는 시중은행에 예치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484-6110(B), 492-7472(R)

교 민 동 정

▲이병권(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회장)=한달간의 고국방문을 끝내고 8일 토론토로 돌아왔다. 비지네스 여행에 바쁘다보니 8월15일에 있을 교민체전준비를 위해 강준남 체육회부회장등 임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어 미안한 감이 든다고…

▲권수희(미라지의상실 대표)=8일 의상실확장이전 개업식을 끝낸 권씨는 봄철의상 세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 다양한 품목을 준비했다.

제2회 토론토 국제아동축제

5월17일부터 23일까지 하버후론트에서

제2회 토론토국제아동축제(Toronto International Children's Festival)가 오는 5월17일(화)부터 23일(월)까지 하버후론트(Harbourfront)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세계아동들을 위한 각국의 연극, 음악, 무언극, 인형극, 댄스등의 고유한 민속을 선보이고 국제친선을 도모한다.

한편 이 기간중에는 세계 각국의 마술, 전래동화, 장난감, 책들도 소개되어 좋은 실물교육 경험도 하게 된다.

토론토 스타지는 축제기간중인 21일(토)에 토론토 스타데이를 설정하고 특별순서를 마련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30분사이에 갖는 각종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1시(4살이상) : 45분간 라피(Raffi)음악회.

▲11시, 2시, 5시(9살이상) : 1시간, 7인의 사무라이(The Seven Samurai)활동사진.

▲12시30분, 3시30분(4살이상) : 50분간, 바보들의 행진(파핏쇼)

▲12시30분, 2시(3살이상) : 50분간, 큰 동물을 접내지 마라(파핏쇼)

▲12시30분, 2시(3살이상) : 45분간, 플라렌스아저씨의 방문(무언극)

▲12시30분, 3시30분(9살이상) : 1시간, 그리핀과 마이너캐넌(파핏쇼)

▲2시30분, 7시30분(모두다, All age) : 2시간, 스누피(Snoopy)쇼 (뮤지칼)

▲2시, 5시(12살이상) : 1시간, 밥버키와 친구들 (무언극)

▲2시(8살이상) : 45분간, 뉴·캐네디안어린이(연극)

▲3시30분(7살이상) : 1시간, 살리노의 신데렐라(어린이오페라)

▲3시30분(8살이상) : 50분간, 장난감병정(무용)

▲5시(4살이상) : 45분간, 샤론·로이스, 브람의 연주회(음악)

이 행사의 스케쥴은 하버후론트, 토론토시내 도서관, 중요쇼핑센타에서 얻을 수 있고 티켓은 Box오피스에서 구할 수 있다.

가격은 공연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스누피의 경우 $8-$11까지이며 그외는 $4-$5이다.

☎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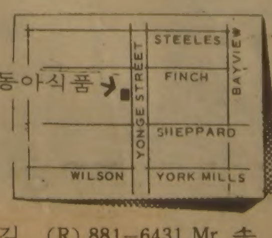
동아식품

저희 두 사람이 뜻과 정성을 합하여 교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장소에 식품점을 개점하게 되었읍니다.

5월초에 개점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송종호·김홍배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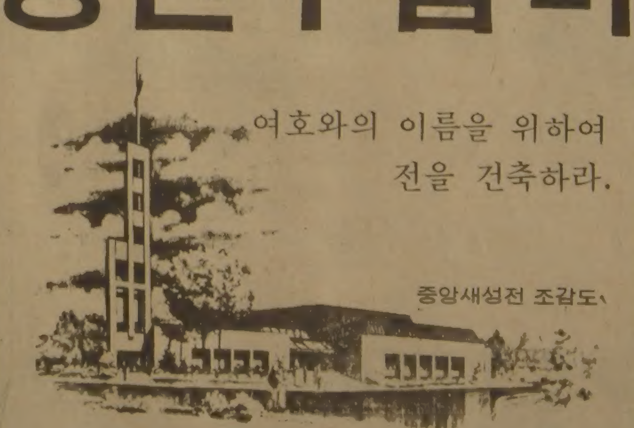
그랜드 오프닝



5568 YONGE ST. (R) 663-1339 Mr. 김 (R) 881-6431 Mr. 송

성전구입바자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중앙새성전 조감도

품 목
★점 심
★주 식 료
★떡 종 류
★선 물 용 품
★의 류
★카셋테이프
★생활필수품
★조 미 료, 밑반찬
★김치, 고추장, 된장
★경 품
★화초류외 성도의 출품

때 : 1983년 4월23일(토) 오전9시~오후7시
곳 : 502 Bathurst St. (at College)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토론토 중앙교회

〈간디〉 8개부문 석권

오스카상 시상, E·T는 4개부문 수상

인도의 무저항주의자 마하트마·간디의 생애를 그린 영화 〈간디〉가 금년도 오스카상 수상식에서 8개 부문상을 휩쓸었다.

세계 영화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1일 밤 로스·앤젤레스·카운티·뮤직센터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간디〉는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원작상, 편집상, 촬영상, 의상상, 미술상등을, 영화 E.T.는 음악상, 시각효과상, 청각편집상, 음향효과상등 4개부문을 차지했다.

최우수주연여우상은 〈소피의 선택〉의 머릴·스트립, 조연남우상은 〈장교와 신사〉의 훈련관역 루이·고셋 2세, 조연여우상은 〈투치〉의 제시카·랭에게로 각각 돌아갔다.

고셋 2세는 63년 시드니·포이치에, 39년 해티·맥대니엘에 이은 세번째 흑인 아카데미상 수상자가 되었다.

봅·호프나 자니·카슨 대신 리자·미넬리, 더들리·무어, 리차드·프라이어, 월터·마튜등 4명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날 제55차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캐나다 영화계는 도큐멘타리 부문을 휩쓸었다.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가 제작한 핵전쟁 경고영화로 미국정부로부터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는 선동적작품이라는 비난을 받은 영화 〈If You Love This Planet〉은 최우수 단편 도큐멘타리상, CBC-TV 〈The Fifth Estate〉 프로그램은 〈Just Another Missking Kid〉로 최우수 피처·도큐멘타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영화는 전 글로브·앤드·메일 및 토론토·스타 기자였던 존·자리츠키씨의 원작, 제작, 감독작품이었다.

최우수 분장상 또한 캐나다 영화 〈Quest for Fire〉가 타냈고 명예상은 왕년의 코메디 배우 미키·루니에게로 돌아갔다.

금년도 아카데미상 주요부문 수상자및 작품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작품상—간디

▲남우주연상—벤·킹슬리(간디)

▲여우주연상—머릴·스트립(소피의 선택)

▲조연남우상—루이·코셋 2세(장교와 신사)

▲조연여우상—제시카·랭(투치)

▲감독상—리차드·아텐보로(간디)

▲우수외화상—Volver A Empezar(to Begin Again·스페인)

▲원작상—굴·브릴리(간디)

▲각색상—〈실종〉

▲음악작곡상—E.T.의 존·윌리엄즈

▲주제가상—Up Where We Belong(장교와 신사)

▲편곡상—헨리·만씨니와 레슬리·브리쿠스(Victor/Victoria)

▲촬영상—빌리·윌리엄즈와 로니·테일러(간디)

▲편집상—존·블룸(간디)

▲미술상—〈간디〉

▲의상상—〈간디〉

▲분장상—〈Quest for Fire〉

▲음향효과편집상—E.T.

▲시각효과상—E.T.

▲다큐멘타리·피처—〈Just Another Missing Kid〉(CBC제작)

▲다큐멘타리·단편—〈If You Love This Planet〉(국립영화위원회 제작)

▲만화단편—〈탱고〉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영화 〈소피의 선택〉의 머릴·스트립양.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등 작품에서 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녀는 미모보다 개성있는 연기력으로 화면을 사로잡는 마력을 지닌 배우이다.

◆〈간디〉역을 맡아 남우주연상을 탄 영국배우 〈벤·킹슬리〉가 부인 앨리슨과 함께 수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년만에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타게된 흑인영화인 고셋2세. 그는 영화 〈장교와 신사〉에서 훈련관역으로 조연남우상을 수상했다.

비지니스 수신탑

서부 아카데미 T.V.를 경영하는 전광재씨는 지난 4일 시내중심지역(영×블루어)에 비데오 가게를 Open했다. 주로 외국 비데오테잎을 렌트해 주고 있으며 예상외로 장사가 잘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비데오 기계도 Opening 스페샬가격으로 판매중이다.

가게명은 Movie Rent, 전화 : 924-8937

◆정태훈=토론토에서 캐나다 최초의 교포신문 「한가주보」를 발행했던 정씨는 최근 위니펙의 「박·수퍼마켓」을 인수, 경영중이다.

한국 음식물등을 취급하는 이 수퍼마켓은 전 한인회장 박영효씨가 경영하던 상점이다. 지난달 모국서 상공부장관 표창을 받은 박씨는 1만5천스퀘어·피트 크기의 캐네디안상대 수퍼마켓을 갖고 있다.

정씨는 드라이빙·스쿨, 부동산중개업등에 종사했었다.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정씨는 지난주 말했다. 전화는 (204)786-2536.

◆김의철(리차드)=수채화가로 촉망받는 부인 천영순씨와 함께 위니펙으로 이주한 김씨는 상점매매로 상당한 기반을 잡았다.

토론토서 사진을 공부한 김씨는 요즘 삼복식품이라는 한국 식품점을 개업했다. 전화는 (204)949-0462.

이로서 위니펙에는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곳이 3곳이 되었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대화개발주식회사 Daewha Developments Lim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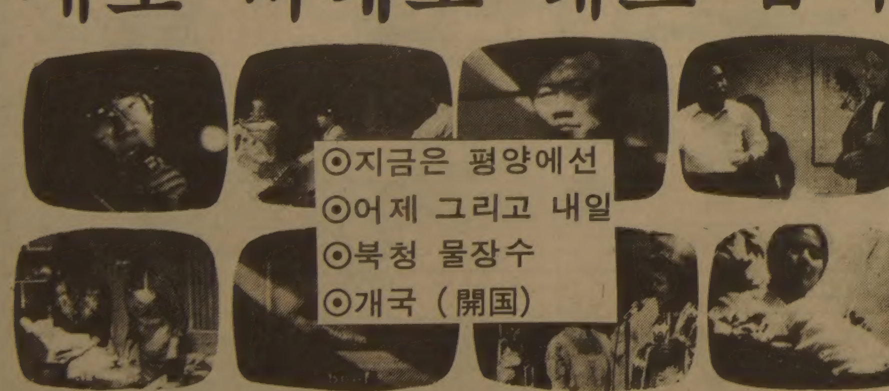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새로 비데오 테프 입하



한국에서

절찬리 상영중

MITSUBISHI VIDEO ●VHS RECORD

MITSUBISHI ELECTRIC

HS-320UR

Spec. $1,250.00

Reg. $1,499.95

HS-700UR

Spec. $859.00

Reg. $999.00

678 BLOOR ST. W ☎ :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종교계소식

한·미기독교 교육대회

5월5~7일…한미문화교육원 주최

LA한인침례교회에서

이민교회들의 2세교육에 대한 방향제시 및 교회교육지도자 양성을 돕기위해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미기독교 교육대회 83년도 대회가 오는 5월5일부터 7일까지 미국의 LA한인침례교회에서 열린다.

한미문화교육원(원장 : 이계조)주최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모임의 대회장은 로벗슨감리교회의 박대희목사이다.

이번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강의(5일 오후7시)

「이민교회학교의 언어문제」에 대해서 월간 「한국인」주간인 박창해교수가, 「가정을 위한 목회」에 대해서 미인간발달연구원 원장인 제임스·할슨박사가 각각 강의한다.

▲목회자세미나(6일 오후1시)

「가정목회를 위한 다양한 모형」이라는 주제로 혼전교육, 성교육, 부모교육, 원만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임스·할슨박사가 강의한다.

▲신앙을 통한 행동지도 및 바른 자아형성.

새로운 문화에서 생기는 청소년들의 가치혼동, 탈선행동의 방지방안을 검토한다. 강사에는 론·잭슨박사 외 3명.

▲특별활동

청소년교육상담과 성교육상담에 대하여 빌·스납스박사가 담당한다.

▲그외에 각종 교육자료 및 장비, 교육방안교안등이 전시되며 레크레이션, 포크댄스등도 곁들인다.

참가신청은 5월1일까지이며 참가비는 1인당 미$40, 목회자세미나는 $15이다.

신청주소는 Hanmi Cultural & Educational Center, 1821 S, 7th Ave, P.O. Box 3624 Arcadia, Ca 91006 U. S. A.

전화 : (213)446-0821, 657-0836이다.

이사회 정기총회

칼빈신학교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캐나다노회 칼빈신학교이사회(이사장 : 조진동)는 오는 16일(토) 오후1시에 동교강당(252 Bloor St, W, 소재 교육회관332호)에서 8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의 이사회에서는 82년도 학사경과보고, 예산안통과, 임원개선, 기타업무등을 처리한다.

회장에 최상봉목사

토론토 한인교역자회

토론토한인교역자회는 4일 금년도 총회를 열어 새 회장단을 선출했다.

시내 20교회의 교역자가 모인 이날의 회의에서 회장에 최상봉목사(벧엘교회), 총무에 홍신웅목사(한인침례교회), 서기에 김요한목사(베다니성결교회)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이날의 모임에서는 한국선교 100주년기념 준비성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임원구성 및 조직을 완료했다.

한인교역자회는 현재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목회교류및 각종교계정보교환, 교역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도의 회장은 안병한목사(갈보리장로교회)였다.

◀ 알립니다 ▶

귀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사는 「종교란」을 신설하고 각 교회의 종교단체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각종행사 일정, 교회 일반소식, 교인동정, 교단소식 뿐 아니라 주보및 각종 간행물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　화 : 416-533-2361

해외파견 선교사모집

토론토한인장로교회

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 박희민)는 금년도 선교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장로교회 세계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 파송할 선교사 1명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나 전도사로서 선교사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캐나다 장로교선교부의 인터뷰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선교대상지로서는 현재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일본중에서 선정될 예정.

선교사 대우는 캐나다장로교 선교사대우 기준에 따르게 되어 교단본부에서 실시하는 해외선교사 요원훈련을 2-3개월 받은후 임지로 떠나게 된다.

관심이 있는 성직자는 이력서와 사진1매를 동봉해 토론토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Toronto, Ont,)나 전화 (416)535-6864의 박희민목사, (416)622-8090 강대길장로, 혹은 캐나다장로교세계선교부 해외총무인 Glen Davis목사 (416) 441-1111로 연락하면 된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독립기념관 건립모금

에덴침례교회 선교부

에덴침례교회(담임목사 : 정태진)는 지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양일에 걸쳐 동교회 섭외부(부장 : 김재우)주관으로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을 돕기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그 1차모금액인 $103,72를 한국일보를 통해 본국에 전달했다.

김섭외부장은 "전교우가 정성들여 모금한 이 기금이 귀하게 쓰여지면 좋겠고 앞으로도 기회있는대로 모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집회

21~24일…강사 김선운 목사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지회 주최의 토론토집회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밤 7:30 벧엘교회(395 Old Yonge St,)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의 강사는 세계복음운동의, 이사장이며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선운 목사이다.

김목사는 서울대 종교철학과를 졸업한후 미 웨스트민스터 대학원수료, 템플(Temple)대학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고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미 필라델피아 북부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한편 주최측은 토요일인 23일 오전11시부터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독교신앙과 주체성(Christian Faith and Personal Identity)라는 제목의 특별영어세미나를 마련하고 토론토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의 참석을 요망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 270-3092, 626-5382로.

「주님의 목장에서」 고마태오신부 출간

고종옥(마태오)신부의 5번째 저서 「주님의 목장에서」가 출판됐다.

캐톨릭출판사에서 발행한 이책자는 고신부의 일기문집으로 LA에 오기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낸 82년1월~6월까지의 일기를 모은것.

현재 시무중인 곳은 웨스트코비나의 성크리스토퍼 한인천주교회.

고신부의 저서로는 「예수없는 십자가」「이세상의 이방인」「사랑의 지도」「고향에 못 갈지라도」등이 있다.

629 S, Glendora Ave, West Covina Ca 91790 960-1805

종교영화 상영

순복음캐나다교회

순복음카나다교회(담임목사 : 조이식)는 오는 15일(금) 밤8시 동교회에서 「종교영화의 밤」을 마련하고 맹인인 안요한목사의 생애를 그린 "낮은데로 임하소서"를 상영한다.

이 작품은 82년도 한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지상설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박경남 목사 (충현교회)

B.C. 600년경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할 때였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인재들과 기능공들이었다. 강대국에서 비록 육신생활은 고국에 있을 때보다 더 풍요했지만 그들은 비관했고 절망에 빠져있었다. 정착을 하느냐, 아니면 정세변화에 따라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로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강제이민의 생활을 하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 그 요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만에 돌아올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빨리 돌아오겠다는 생각만을 하지말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하라고 했다. 이민생활을 한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법과 질서는 잘 지키라고 권면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은 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고 있다. 육신이나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찾아서 오늘도 거리에 오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본다. 우리도 이 캐나다에 무엇인가를 찾아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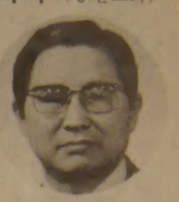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곳까지 찾아왔으며, 하고싶은 말도 못하고 고국에서는 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다. 고국에 있었다면 오히려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를 우리가 여기에 와서 찾고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백성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참기쁨과 만족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의 참행복은 지으신 자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일의 성취나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도취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침안개와도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오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교회에 나가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더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렇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인간적인 공명심이나 명예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박 경 남목사

세상적인 그 무엇을 찾는 열심의 반 정도의 소원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보았다면 그들의 간증은 달라졌을 것이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이웃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적어서도 아니다. 문제는 나자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찾되, 전심으로 찾았는가? 바벨론의 유대민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은 망하지 않고 70년 후에는 다시 고국에 돌아와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200여년전 하나님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건설한 신앙의 땅 북미대륙에 살고 있다. 이제 태평양을 건너온 우리 한민족은 무엇을 찾고 싶을 것인가?

바쁜 이민생활 중에서도 우리 2세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 열심히 심는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종　교　서　관
기독교및 일반서적·액자및 성화
714 BLOOR ST. W. ☎535-1920

교　회　안　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응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준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가나안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Weston (at Eglinton Ave, W,) M9P 3A8	742-7010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관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안상엽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R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총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연합교회 (United Church)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태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복음다이알)	922-3863 922-0605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판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63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회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오후 2:00, 4:30 새벽기도 5:30 금요기도 밤 9:0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복음다이알	423-9880 423-840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Downsview, M3H 3C3 (생명의 전화)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판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245-4980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 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 783-5881 (204) 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한인연합펜티코스탈	안학현	주일오후 1: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안식일교회				
제7일안식일	박형총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기도원				
오순절기도원				
토론토기도원				
협신기도원	이광옥		75 Emmett Ave, #1005, Toronto M6M 5A7	245-1687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 11:00 평일기도 오후 2:00 토요집회 오후 2:00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onto M4E 3L7	698-536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동일大學 前·後期나눠 모집

빠르면 내년 新入生부터 적용
여름放學 12週…夏季學期 신설

志望한 과목 學力고사성적 配點높게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여름방학이 12주 (3개월)로 늘면서 대신 하계학기가 신설되며 대신겨울방학이 대폭줄어들것같다.

또 대학입시에서 동일대학 동일학과 신입생을 전·후기로나눠 분할모집하고 학과의 특성에따라 학력고사 성적중 관련과목성적이 가중산정된다.

전국98개 대학총학장의 모임인 대한교육협의회 (회장 朴吉眞 圓光大총장)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학기운영및 신입생 모집개선방안을마련, 문교부에 건의했는데 문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받아들여 빠르면 내년도부터실시할방침이다.

학기제 개편

여름방학을 현재의 7주에서12주로 대폭 늘리는 한편 겨울방학을 11주에서 8주로 줄여 대학에 따라 길어진 여름방학기간에 하계학기를 따로 편성, 운영할수있게한다.

이에따라 현재 1, 2학기별 수업일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각각 16주씩으로 통일시켜▲1학기는 2월제4주~6월제2주▲여름방학 6월 제3주~8월말▲2학기 9월제1주~12월제3주▲겨울방학 12월제4주~다음해 2월 제3주로 조정운영케 한다.

하계학기는 사회인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도 활용할수 있게하며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도수강, 별도로 학점을 취득할수 있게 한다.

전후기 분할모집

대학의 자율에 따라 학과별 또는 대학별 모집인원을 전기와 후기로 일정비율씩 나눠 선발한다. 대학이 전기에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후기에 따로 모집해 정원을 채운다.

학과별로 전·후기 모집비율은 달리할수 있도록 하며 전·후기모집에서 정원에 미달한 인원의 추가모집은 현행제도와같이 전후기 모집이 끝난뒤에 할수있게 한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분할모집을 할경우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넓혀주며 고득점자의 재수율을 감소시킬수있다고 밝혔다.

가중점제도

대학의 자율에 따라 입시성적에서 학력고사 성적중 전공 관련과목의 점수를 가중 산정하는 이른바 변별적 (辨別的) 적용을 허용한다.

예를들면 수학과의경우 전체학력고사 과목중 수학점수에 비중을크게해 입학사정을 위한 총점계산에서 혜택을보게 한다는것.

학과별 유관과목의 결정과 과목수 가중산정의 비율과방법등은대학이결정토록한다. 그러나이제도는컴퓨터시설과 행정능력이과목별점수를개별통지할수있는 경우에한한다.

美, 北韓접촉說否認

北韓이 최근 오스트리아의 빈과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미국과 비밀접촉을 벌이고 있다는 統一日報의 8일字보도에 대해 美국무성은 그런 사실이없다고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현대美術館 10월着工

果川에, 86년이전 完工계획

◇남서울 대공원 안에 들어설 현대 미술관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고 과학적 보존기능을 완전하게 갖추어 명실공히 국제적규모로 짓게 된다.

문화공보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종합센터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을 2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10월 착공, 86년 아시안게임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李振羲장관은 9일상오 기자회견을갖고『국립현대미술관을 경기도始興郡果川面 서울대공원의 중심축이되는 望京臺 서면산록의 2만평대지에 자연지형을 그대로살려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짓게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따르면 새미술관은 연건평만 1만3백평에 이르고 전시면적만도 현재의 미술관보다 5·6배나 크며 회화전시관과 山城型조각관으로 꾸며진다. 1층은 기획및 대여, 2층은 상설, 3층은 기념전시실로 사용된다. 1만평의 야외조각전시장은 대표작품 코너와 상설전시장 어린이造形광장 기획전시광장 조각實技場으로 구분, 현장교육장과 예술휴식처를 겸하게된다.

새미술관의 설계는 金泰修씨(美하드포드 디자인그룹대표)가 맡게되며 다음달에 본설계를 끝내고 검토기간을 거쳐 오는10월께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내년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李慶成현대미술관장은 새로 짓는 미술관은 지세를 전혀 훼손하지 않은채 자연경관과 조화를 맞추어 짓는 것이 특색이라면서 앞으로 작품의 확보를 위해 국내외 중진작가에게 전시장소를 제공하고 현장제작을 권유하며 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 작품을 기증해주도록 권유하고 작고 또는 생존 원로작가에게 기념실을 제공, 기증전시를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미술관의 외부는 국산화강암으로 단장하고 전시홀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한 天光窓 지붕으로 처리하며 신체장애자를 위한 완만한 경사로를 만든것이 특색이다.

泰·베트남 全面戰위기

베트남軍 1개師 增派

美, 武器 긴급空輸

샘미사일에 泰機1臺 墜落

【워싱턴·방콕AP UPI=聯】미국이 8일 타이에 각종무기를 긴급 공수하기 시작하고 타이·캄보디아국경지역에 이미 4개사단을 집결시켜놓은 베트남軍이 1개사단을 증가 배치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짐으로써 타이—베트남간에 전면전의 위기가 한층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캄보디아주둔 베트남軍의 對空포대는 이날 타이·캄보디아 국경지역상공에서 타이공군의 제트기를 격추시켰으며 타이軍은 타이영내로 침입해 들어온 베트남軍 수확대를 격퇴시켰다고 발표했다.

미확인보도들은 베트남군이 소련제 샘地對空미사일을 사용하여 타이軍 제트기1대를 격추시켰다고 전했다.

존·휴즈국무성수석대변인은 이날 미국이『타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입장을 과시하기위해』1백55㎜ 호위저곡사포 레드아이 地對空미사일 탄약 병력수송용 장갑차(APC)등 각종무기와 군사장비를 신속하게 인도할것이며 이중상당량은미국의비축분에서충당될것이라고설명했다. 휴즈대변인은미국이앞으로 10일동안에 軍用수송기를 동원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타이에 무기를 空輸할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타이는인도받을 美製무기의 구매대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軍은 이미 4개사단을 집결시켜놓은 캄보디아·타이국경지역으로 새로 3개연대로 구성된 시엠리프주둔 베트남軍 제9사단이 캄보디아의 6번공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고 군사소식통들이 전했다.

美미사일등 泰도착

【방콕UPI=聯】베트남군의 국경침공에 맞서고있는 타이군을 돕기위해 미국이 긴급공수한 무기들이 9일 방콕에있는 타이공군기지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타이에 공수하기로 약속한무기중 1차로 견착식 레드아이地對空미사일 일부가 9일 방콕에 있는 타이군사기지에 도착했고 곧이어 나머지무기의 공수도 가속화될것으로 보인다.

韓·솔로몬首相회담

外交·經濟협력 논의

金相浹국무총리는 9일상오 중앙청을 예방한 솔로몬 아일랜드의 마마로니 수상을 맞아 회담을갖고 솔로몬群島의 資源활용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金총리는 마마로니 수상에게 韓半島의 分斷상황과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을 설명하고 양국간의 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마마로니수상은 新生국가인 솔로몬이 외교의 역점을 東南亞국가와의 친선에 두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 발전하는 나라들과도 친선관계를 맺으려하고 있다며 외교, 경제등에서 양국간의 협력강화를 희망하는한편 솔로몬의 山林및 水產자원의개발을위한 공동투자와함께 기술훈련의 제공을 요청했다.

◇金相浹총리와 회담하는 마마로니首相。

임시國會 波瀾예상

地自制·政治議案처리등 불씨로

국회는 11일상오10시 제116회임시국회를 열고 임기가 끝난 正·副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 새로운 院구성을 마친후 정부로부터 國政에관한 보고를듣고 對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계류중인 국회법개정안과 地自制실시등 政治議案의 처리를 놓고 與野간의 정치적공방이 예상되는데다 民韓黨이 의원총회에서 金根祖씨치사사건과 유학생시험부정을 들어 내무장관과 문교장관의 引責을 요구키로 합의,解任결의안이나 解任권고안을 제출할것이 분명해짐에따라 상당한 진통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그동안 爭點으로 많은 논란의대상이되었던 油價인하문제와 부동산투기대책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만만치않게 추궁할것으로 보여 政治議案과 引責문제의 처리여하에 따라 적지않은파란이 빚어질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국회일정은 다음과같다.

▲11일=국회正·副의장선거·개회식 ▲12일=국무위원출석요구및 國政보고청취 ▲13일=常任위원장선거 ▲14일~22일=각교섭단체대표연설 ▲15일~22일=본회의 국정에대한 질문▲22일~29일=상임위▲30일=본회의 案件처리

◇美亡命 후나孃 가족들 美國으로 망명한 中共여자 테니스선수 후나(胡娜)양의 아버지 후윤푸씨 (왼쪽에서 두번째)가 7일 中共南部 청두市에 있는 자택에서 中共기자들과 회견을 가지던중 사진촬영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있다. 【청두(中共) 9日UPI電=聯合】

開途國 상품기금에 한국, 30만弗 出捐

朴대사, 77그룹閣僚會議연설

아르헨티나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있는 77그룹閣僚회의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朴雙龍駐제네바대사는 7일 기조연설에서『개발도상국의 1차産品가격하락을 방지하기위해선 공동기금의 설치와 개별상품협정의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면서『한국정부는 공동기금에 30만달러를 기여키로했다』고 밝혔다.

朴대사는 이밖에도 ▲開途國 상품에대한 선진국의 보호주의 철폐▲開途國의 外債해결을위한 現국제금융체제개편▲開途國간의 무역특혜제도(GSTP)早期실현등을역설했다.

공무원 名譽퇴직 上半期 2백31명

정부는 금년上半期중 2백31명의 공무원을 명예퇴직시키기로 했다.

총무처가 9일밝힌 명예퇴직예정자는 2·3급8명, 4급50명, 5급33명, 6급이하60명, 검찰1명, 경찰16명, 소방4명, 기능직40명, 軍務員19명등이다.

崔圭夏 前대통령 유럽9國 訪問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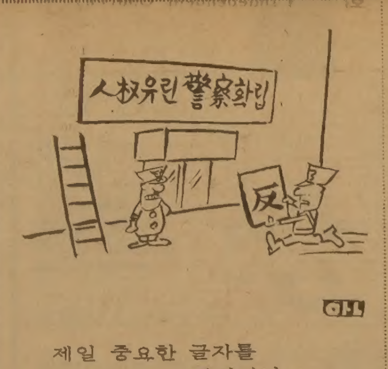
國政자문회의의장인 崔圭夏前대통령은 프랑스,西獨,이탈리아등 유럽 9개국을친선방문하기위해 9일상오 부인 洪基女사와함께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했다.

TV한국 방영시간

◉화 : 오후5시반 MTV Ch. 47 케블 4
◉수 : 오전10시 MTV Ch. 47 케블 4
◉일 : 오전 8시 CITY TV Ch. 79 케블 7

(로저스 케블)(Converter)
◉화 : 오후 7시반 채널 34
◉토 : 오후 7시 채널 34

社會漫評



제일 중요한 글자를 빼먹다니…

地平線

몇년전까지만해도 관악산에 群落을 이루고 있던 개비자나무가 지금은 사찰경내에만 단 한그루 남았을 뿐이라는 李昌福씨의 글을 보고 놀랐다.▼원래 바둑판 만들때 최고급재로 알려진 비자나무는 남쪽에만 자생하고,키가작은 개비자는 속리산 北向응달이 한계라고 짐작되고있었다. 한데 실제는 서울에도 그 나무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었던것이다. 이번에 道峰山·仁壽峰등 國立公園으로 지정된 北漢山일대에는 희귀식물인 미선나무,백선나무,애기우산나무등이 살고있다. 江原道 깊은 산골의 精英樹못지않게 育種의 대상이될 나무들이 의외로 서울에도 남아 있을지 모른다.▼昌德宮뒤의 비원에가면 수백년된 느티나무 群落,갈참나무의 숲,6백여년묵은 다래나무를 볼수있다.아깝게 이 다래나무는 수나무다 열매는 못맺는다.남산의 소나무는 獨也靑靑하지만 그 골짜기에 피던 봄의 남산제비꽃과 가을의 구절초는 지금 찾아보기 힘드니 안타까운노릇이다.▼이번 식목일에 청와대 뜰엔 백송을 심었다.백송가운데 가장 오래된것은 통의동에 있는 6백년 노목이다. 優雅하게 생긴데다 껍질이 희고 솔잎이 두개인 赤松과 달리 세개씩 붙는다.조계사 경내,齋洞,원효로4가에도 있다.▼서울시 지정 보호수 1호는 1천년된 방학동의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는 예부터 나라에 큰변이 있으면 불이 난다는데 박대통령 시해사건때도 소방차가 출동했었다. 창덕궁내엔 7백년된 향나무가 있고 삼청동 총리공관에 있는 등나무는 9백년이 넘었다. 신림동에는 수령 1천년의 老巨樹 굴참나무가 있어 이나무의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먹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아파트촌이된 잠실은 원래 뽕나무로 유명하다. 王家의 親蠶所가있었고 말라죽은 老桑木을 그냥 지방기념물로 보존해 왔다.▼자하문의 능금나무숲,성균관대안의 은행나무(4백년),정동의 회화나무(8백년),홍은동의 음나무(4백년),화곡동의 측백나무(4백년)등 그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나무들이다. 귀한 이 나무들을 오래 오래 잘 가꿀것은 우리모두의 일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한국선교100주년기념 준비연합성회

강사 : 한경직목사

할렐루야!
1984년도 한국선교100주년을 마지함에 앞서 카나다전역에 계신 전 교민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새로운 선교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 사업회 총재로 수고하시는 한경직목사님을 모시고 뜻깊은 준비연합 성회를 개최하오니 다함께 참석하시어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일시 · 1983년 4월29일(금), 30일(토), 5월1일(일) 오후7시30분
□장소 : 한인장로교회당(전화 : 762—1495) 1183 DAVENPORT RD

한국선교100주년 토론토기념사업회
자문위원: 최사철, 양세주·서금찬, 여웅순·강인병, 백낙순·박경남, 김중환
대회장: 계화삼 목사
실행위원: 장세택·홍중표·박회민·안병한·정태진, 최상봉·이필주·김용출·윤수복

기념전도성회	학술강좌	청소년대회	기념사업
위원장 김재광	위원장 이상철	위원장 홍신웅	위원장 김용진
박춘하	조남유	이정춘	차추성
조이식	김상호	김요한	김승한
조창환	김익선	유재신	김원정
정관일	홍순판	김경진	유환진
조성판	반병섭	김택규	서인구
권순국			
장은덕			

□주최 : 한국선교100주년기념성회준비위원회 □후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회

대 회 장 : 계화삼 목사
부대회장 : 박회민 최상봉 목사
준비위원장 : 김재광목사
총 무 : 조이식목사
예비위원 : 조창환 목사
홍보위원 : 장은덕 목사 심상대
회 계 : 고성원,안정식
재정위원 : 구연원, 전태균, 이춘희, 조두현, 홍중표
안내위원 : 강대길, 이찬진
음악위원 : 박재훈, 권순국
동원위원 : 정관일, 조성판, 김희하
섭외위원 : 박춘하, 조진동
부녀위원 : 윤수복
청년위원 : 정 호 영
학생위원 : John·리

아침 한때

치솟는 땅값에 웃고 울고…

投機불길 끈다고 뒷북만 쳐서야

李 滿 基
〈經博·한양대경영대학원장〉

작년 下半期부터 일어난 부동산투기는 정부의 여러차례에 걸친 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식지 않더니, 드디어 일부 기업의 非業務用부동산 매각분의 재매입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개포동 아파트분양에서 시작된 투기는 과천과 강남일대를 휩쓸고, 이제는 江北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전국의 땅값을 들먹이게 하였다. 지난 77년에도 여의도 아파트에서 시작된 투기가 78년8월 H아파트 분양사건이나기까지 서울의 地價를 평균 2배나 상승시켰고, 이때에도 정책당국의 투기억제책은 투기를 뒤따르며 오히려 부채질만한 결과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거의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江南서 江北으로

그동안 經濟開發과정에서 땅값은 너무도 엄청나게 올라, 많은 사람을 웃고 울리어 왔다. 이러한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不動産政策의 不在에서 온 것이다. 부동산투기가 일때마다 정책당국은 뒤늦게 이를 쫓아다니면서 불을 끄기는 커녕 오히려 투기를 홍보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그것은 투기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이른바 拔本塞源을 하지않고 지엽적인 대책만 분주하게 마련했을 뿐이었던 까닭이다. 이번에도 0순위의 철폐, 특정지역의 告示, 채권최가등 모두가 임기응변적인 대책에 불과했고, 이미 부동산값이 다 오른 뒤에 이를 홍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었다. 투기의 원인이 아파트 청약제도의 결함이나 특정지역의 입지조건때문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뒤쫓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의 투기는 당초 內需, 또는 건축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으로 양도세를 내리고 대폭적인 金利引下와 실명제논의등으로 금융시장의 돈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찾게 만들었고, 특히 金利인하이후 먼저 집세가 오르고 이에 따라 집값이 오르면서 투기를 일으킨 것이다. 보통때 집값의 3분의 1이던 전세값이 2분의 1에서 심지어 3분의 2로 높아졌고, 월세도 이에 준해 올라 住宅수요를 환기시키고 집값이 오르면서 때마침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투기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역산해서 집세가 오르고, 또한 그 결과 금리와 집세의 격차를 倍加시킴으로써 부동산 소유의 매력이 높아난데 원인이 있는것이지, 청약제도나 學群이나 특정지역의 이익에만 기인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 골프장을 만들고 콘도미니엄을 개발하여 신흥재벌이 생기자 기존 재벌도 이에 질세라 골프장과 별장 (콘도미니엄)을 짓기에 바빠졌다. 이른바 레저産業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사업도 사업이기는 하나, 따지고 보면 부동산투자의 연장인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투자는 企業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념에 혼동을 일으키게 했고, 마침내 일부 기업의 再買入사태에 이르게 한 것이다. 다시말해서 재벌이 땅을 사서 골프장이나 별장아파트인 콘도미니엄을 만든것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업무용」매입인것 같고, 주력사업인 생산이나 무역등의 사업이 아니고 부동산투자의 연장으로 보면 비업무용인것 같이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레저産業을 이유로 부동산투자를 하는 것은 공장이나 주택을 건설하는 생산업과 다른 것이며, 한편 재벌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금융과 부동산과 사업의 한계를 어디에 그을수 있는지 모호하게 만드는데서 발생된다.

과도적인 현상이지만 지난 6·28금리인하이후 금융업과 기업은 상당한 역금리의 손실을 보았고, 예금주의 이자수입도 줄어든 반면 부채가 많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덜어준 것인데, 이들이 자기사업과 관계없는 부동산에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것은 도의적으로도 묵과할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취약한 財務構造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빚이 많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도록 한 것이 80년의 9·27조치였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던 당시 土開公을 통해 買入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니까 다시 사들이게 된것이 일부기업의 사건이 아닌가 추측된다.

「四寸이 땅을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재벌의 부동산매입을 시기할 생각은 없다. 어떤 의미론 「땅을 사면」이란 이 속담의 표현은 우리 국민이 땅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면도 있다. 농경사회의 땅에 대한 애착은 그런대로 건전한 것이었으나 산업사회에 들면서 그것은 투기와 매점으로 바뀌었다. 경제발전의 혜택을 土地所有者만 독점하고, 한 마지기의 농토가 수십억의 재벌로 돈갈할 수 있는 횡재를 안겨주기도하면서, 투기적인 풍토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횡재가 당연한가

지금까지 정책당국은 이러한 횡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私有재산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 개의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고, 이곳 저곳 수고 해서 번돈에 종합과세를 하면서, 地價上昇으로 횡재하거나 투기로 번 돈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는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특정지역이라는 곳의 아파트값이 두배에 가깝게 오르고 이제는 강북의 땅값도 수십%올랐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상승이 도매나 소비자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있다. 부동산이 도매상품이 아닌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해서 衣食住의 하나이면서 가장큰몫을 차지하는 住宅價格의 상승이 주거비속에도 반영되지 않고 오직 셋방사는 사람들의 집세인상만 8%의 가중치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있을뿐인것이 잘 납득되지않는다. 그만큼 부동산가격을 물가에서 무시해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뛰어도 물가지수는 안정된 상태에있다. 집값이 오를수록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점점 어려운데 전혀 住居費에도 반영시키지 않은채 안정된 물가지수만을 즐겨도 되는것일까.

부동산투기의 문제는 그 價格上昇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미 값이 오를대로 다 오른뒤에 투기억제책을 마련해봐야 배 떠난 뒤에 손드는 격이다. 언제나 價格上昇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아쉬운 豫防대책

특히 기업의 부동산투자는 금융에 대한 제재로 방지해야 한다. 생산이나 輸出을 이유로 많은 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이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명백히 자금을 목적외로 유용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개발과 투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집세가 오르고 집값이 오른것은 한편 住宅의 부족에도 기인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서민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賃貸住宅제도를 개발해야 집값과 집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生命保險회사가 주택임대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인이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이 부족하여 집세가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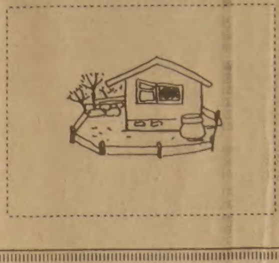
도심지의 재개발지역에 재벌들이 高層건물을 짓는것도 무조건 비난할 일이 아니다.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야하는 고층건물은 재벌이 아니면 담당할수 없으므로 이를 비난한다면 재개발을 포기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都市개발, 나아가서는 全國土의 개발과 이용에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고, 개발과 투기를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근본적으로투기는 價格差益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투기의 억제가 가능한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렵고 땅값이 오르면 中小企業의 공장건설이 어려우므로 투기는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몇몇 土地所有者의 불로소득을 초래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해야한다.

그러나 집을 많이 지어야 집값이 안정되고 고층건물을 많이지어야 사무실의 임차료를 안정시키므로 住宅이나 건물을 짓는것은 누가 담당하든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특히 필자는 여러차례 강조하였듯이 공익사업체가 賃貸住宅을 보급하는것이 대단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이미 불타버린 부동산투기의 방지가 아니라, 앞으로 재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마련할것을 정부당국에 당부하는 바이다.



토지再買入·油價·文敎정책등 「뜨거운爭點」만발

임시國會 내일開幕… 各黨움직임

民正 野圈공격분석…조용한「臨戰태세」
民韓 인책 辭退요구에 「강경背水陣」도

週末政局

○…제116회 임시국회가 11일 幕을 올린다. 11代후반에 처음열리는 이번국회는 작년 정기국회이래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그동안 쌓인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고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올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발생한 경찰관의폭행致死사건과 油價문제 문교정책등 최근에 일어난 각종 이슈들이 더욱 이번 임시국회를 뜨겁게 만들것같다.

○…民正黨은 이번 국회에 아직까지 대책회의도 미룬채 조용하고 말없는자세를 보이고 있다. 단지 당직자들이 散發的으로 국회대책을 밝히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야당을자극하지않고 조용하게 이번국회를 넘기려는 심산이다.

특히 고문치사사건과 토지재매입문제등 爭點에대해 無言의반응을 보이는대신 행정부와의 은밀한 대화를통해 ▲고문의 引責범위는 치안본부장의 경질로 그치고▲금주초 재벌의 토지매입관계수사 결과발표를 기다려 黨論을결정, 「적은목소리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방침.

여유만만한 표면상의 자세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臨戰태세를 갖추고 있다.

총무단은 그동안 내밀하게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豫想爭點사항을 36개로 추출, 사안별로 야당의 공격형태를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한「모범문제집」를 마련, 各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이미배포했으며 내주에는 국회常委별로 작전을 짤 예정.

民正黨은 野黨이 好材로삼고있는 고문사건등 여러가지 문제에대해 野黨의 정치공세는 正攻法으로 봉쇄한다는 戰略도 세워놓고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법개정문제는 당초 여야간 잠정합의한대로 이번 국회에서 심의를 끝낼수있다는 입장이나 陳대표·鄭石謨정책위의장·李총무는 모두 입을모아 『改革立法은 4년간은 시행해보고나서 꼭 바꿔야할것이 있으면 검토해본느것이좋다』 『법보다는 운영에 달려있다』고 개정에 부정적태도이고 地自制문제도 『실시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있어 여전히 鐵壁.

○…8일의 의원총회를 통해 드높은 出戰의 旗를 올린 民韓黨은 이번 임시국회는 初盤부터 波高가 드셀것이라는 예상과 終盤에이르러서는 격랑이 일것이라는 추측마저 나오고있다.

民韓黨은 최근 경찰관의고문 치사사건과 관련, 당무회의에서 「관계국회 常委에서 진상을 규명한뒤 引責범위를 결정」키로했던 온건 黨論을 마련했으나 8일의의총은 이를 번복시켜 내무장관의 인책사퇴요구와 한때 문교장관까지 그범위를 확대하는 강경 당론으로 急旋回했다.

이러한 黨內사정이 波高를 높이는 요인이 될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번 국회가 제12代 總選을 겨냥할 싯점인데다가 2·25 解禁 조치로인한 의원 개인의 잠재된 지역구 격전등과 함께 후속 解禁조치에 대비하여 黨차원에서의 在野를 의식하지 않을수없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치의안의 成敗를판가름 할 싯점인데다 야당으로서는 이른바 好材가 어느때보다 많은 절호의 기회이며 그동안 누적된 黨職소외등의 불만이 迂廻 분출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

民韓黨은 우선 4월말 처리 時限으로 되어 있는 국회법개정안 관철에 黨力을 집결시키는 한편 현안의 최대관심사인 내무 문교 행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기본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地自制, 정치 被규제자 全面 解禁, 農·水·畜協法 개정안등 계류중인각종 의안을 원위치에서 재점검한다는 한편 지난 정기국회이래 임시국회까지 非會期중 발생한 大小 사건을 빠짐없이 파헤쳐 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林鍾基총무는국회법개정안의 「4月末 처리 時限」에 대해 『합의한 개정을 뜻하는 것이지 폐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개정이란 改善의 의미이지 改惡의의미는 아니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林총무는 『현행의 국회법이 국가긴급권에 의해 제정된 법인만큼 民選에의해 구성된 국회에서 다시 손질하는것은 당연한것으로서 최근 民正黨측의 「4년동안 개정不可」의견은 국가긴급권을 4년간 연장시키겠다는 확대해석이 나올수도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民韓黨은 또 「일견의 무원칙적인 부동산 투기대책」과 함께 경제장관의 인책추궁도 고려할수있다는 背水의 陣을 쳐놓고있어 귀추가 注目.

○…이번 임시국회를 맞는 국민당의 태도는 비교적 소극적인편. 현안문제에 대한 院內戰略과 주장은 대개 民韓黨의 그것과 차이가없지만 의지에있어서는 民韓黨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고있다.

국민당은 民韓黨과 같은날인 8일 의원총회를열고 「引責」등 주요院內戰略을 논의했지만 당무회의에 모든 결론을 일임했다.

그러나 40여일간의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金鍾哲총재의 주재로 열린 9일의 黨務회의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아 개막전야까지 院內對策不在상태를 드러내고있다.

물론 총무단과 정책팀은나름대로 46개의 임시국회課題를선정,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만 당지도부가 아무런결론을 내리지 않고있어 소속의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

○…民正黨은 대표위원으로서 처녀출전하는 陳懿鍾대표의 연설문안 작성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있다. 이를위해 陳대표자신이 「연설素材」파악에나서 몇가지 아이디어를 鄭石謨정책위 의장에게시달했으며 鄭의장은 朴鉉泰정책조정실장, 任哲淳 黃炳晙 現前국책연구소장 全炳宇 정책조정부실장등과 지난 3일부터 몇차례 정책팀회합을갖고 熟議.

이어 7일에는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가 정책위팀과 머리를 맞대었고 11일중 다시모임을 갖고 草案을 작성한후 당이론가인 金榮作이념실장이 최종원고를 마무리 계획.

陳대표의 연설은 各論을 피하고 總論을 펼치면서 정치문제에 많은 언급을 할것으로 보인다.

陳대표는 『정치인이니까정치문제 얘기를 많이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 방향을 제시.

또9명의 對정부질의자도 8일 鄭의장주재로 첫 모임을 갖고 의제별로 질문분야를 결정, 11일까지 草案을작성하고12일다시모임을갖고중복발언부분등을조정한다.

民正黨질의자들은 대부분 갑자기 질의자로 결정된탓인지 준비시간에 쫓기고있는데 정치일반에 대한 질의를 맡은 鄭男의원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선을다해 사람들만나고 자료를 모으고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朴敬錫(안보) 金顯煜(외교) 李龍鎬의원(상공·농수산관계)들도 주말을잊은채 국회도서관과 친분이있는 학자,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자료수집에 분망.

○…民韓黨은 柳致松총재의 대표연설을통해 國政전반에 걸친 黨의 입장을 제시한뒤 6명의 본회의질문자들이 총론적 자세로 분야별 문책점을 제기하면 각 常委에서 각론적자세로 失政을 파헤친다는 「3단계 對政府공략」의 작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연설 기초7人小委(林鍾基 金鉉圭 孫世一 金珍培 睦堯相 洪思德 李閔雨의원)는 이미 서너차례의 회동끝에 문안의 기초를 끝내고 李의원이 대표집필에 들어갔다.

본회의 對정부질문자 6명은 多選과 初選을 배열하면서 전문성을 가미시킨다는원칙아래 마지막人選작업에 피치를 올리고있으나 인선이 늦어질 경우 준비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있다.

○…상임위배정문제에 매달려 대표연설자의 人選조차 하지못한 국민당은 대표연설문」의 文案작성작업도 착수하지못하고있는 실정.

그러나 중앙당사무처 실무진은 나름대로 대표연설내용중 절반을 「檢討畢」한 것으로 알려져 당지도부의 태도와는 대조를 보였다.

대표연설자 선정이 지지부진한데비해 대정부질의에 나설 金完泰(정치)·曺德欽(경제)·金永生의원(사회)등은 나름대로 「최선의作品」을 만들어 내기위해 안간힘을쓰고있다.

金完泰의원은 『야당이라서 그런지 자료준비에 애로를겪고있다』면서도 工程이 60% 진척되었다고 자랑.

曺德欽의원은 『油價, 투기억제대책등의 문제를 따지겠다』고 준비중이고 金永生의원은 『교육과 人口문제에대해 집중질의할 계획』이라면서 동분서주.

【李成俊·李以春기자】

메아리

꽃철에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꽃철이 한창이다.

산에 들에 꽃은 피는데, 가족끼리 꽃구경이라도 나서면 어린이들은 꽃이 왜 피느냐고 자꾸 묻는데, 어른들은 그냥 철이 되니 피는것이 아니냐고만 말할뿐 충분한 대답을 주지못한다. 꽃은 우리에게 항상 그런 의문이전의 상태에서 절로 피고있다.

꽃은 아름다움의 가장 原初的인 형태다. 세상에 철따라 꽃이 피지 않았던들 사람은 얼마나 美에 굶주렸겠으며 과연 美意識이 이만큼 발전해 왔겠는가를 꽃앞에 서면 생각하게 된다.

꽃은 양복 깃의 단추구멍에 꽂히기위해 있다. 그만큼 인간생활에 가장 요긴한 장식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꽃 없이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못한다. 産室에도 결혼식장에도 장례식에도 꽃이 따라 다닌다. 기쁜 일에나 슬픈 일에나 꽃 없이는 축하도 위로도 없다. 儀式이나 행사뿐 아니라 꽃은 집의 창문밖에서 또는 길거리나 도시의 광장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위안자다. 「때로는 빵을 살수 없는 사람도 꽃은 산다」고 발자크가 쓴일이있다. 불행한 사람에게는 꽃이 행복 자체이기도 하다.

佛陀가 탄생할때도 꽃들이 인사를 했고 그가 죽었을때 꽃들은 입을 닫았다.

그리스神話에서는 諸神들이 花冠을 머리에 쓴채 花冠없이 자기앞에 나타나는 者에게는 얼굴을 돌린다.

고대 로마에서는 宴會를 할때 會食者는 醉氣를 막는다고 반드시 머리에는 花冠, 목에는 꽃목걸이를 걸었고 花冠의 꽃을 따서 술잔에 넣어 술을 마셨다.

「장미는 법률보다 인간을 섬세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 꽃은 장식일뿐 아니라 질서와 평화의 役軍이기도 하다.

이런것이 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꽃의 生理에 너무 무관심하다.

우선 꽃이란 무엇인가. 식물학자에 따르면 花粉과 종자를 만드는역할을 하는 부분을 꽃이라고 한다. 종자를 만드는 식물만 꽃이 있고 종자와 관계되는 부분만 꽃으로 간주된다.

꽃들이 철따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따라 제각각으로 피는것은 온도와 빛의 방향이 꽃나무마다 다르기때문이다. 꽃은 낮에만 사랑을 보라고 피는것 같지만 사보텐의 어떤 종류는 한밤중에 피었다가 새벽에 시드는것도 있다.

나팔꽃은 아침에만 핀다. 이꽃을 전날 낮에 미리 피우게 하기 위해 아침과 똑같은 온도와 같은 광선의 조건을 주었댔자 나팔꽃은 쉽사리 꽃잎을 벌리려고 하지 않는다. 식물의 체내에는 지구가 생긴이래 긴 進化의 역사속에 24시간 週期의 生育 리듬이 생겨있고 이것을 사람의 짓궂은 장난가지고는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을 수 없다. 人爲가 꺾을수없는 꽃의 고집이 있는것이다.

꽃은 都塵속에서 필때 빛을 잃는다. 高山에 피는 꽃이 아름다운것은 平地보다 먼지가 적어 紫外線이 흡수되거나 굴절되지않고 강하게 닿아 빛깔이 진하기 때문이다. 꽃은 大都市가 싫다.

꽃은 왜 피고 지나. 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의 작용때문이다.

꽃은 왜 각색의 빛깔이 있나. 안토시안과 카로틴이라는 두가지 色素때문이다.

꽃은 왜 향기가 있나. 꽃잎속에 精油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공기속에 발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歲歲花開知爲誰(唐代詩人 李頎의 「題盧五舊居」의 귀절), 해마다 해마다 꽃은 누구를 위해 피나. 鐘이 그대를 위해서도 울듯이 꽃 또한 그대를 위해서도 핀다하겠지만, 꽃에게 물으면 섭섭하게도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자고 피는 것이 아니다. 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벌레를 위해서 핀다. 아름다운 꽃잎으로 벌레들의 눈을 끌어 花粉을 나르게함으로써 종족을보존하기 위해서다. 受精이 끝나면 꽃은 시들어버린다. 사람은 꽃을 보고 좋아하지만 꽃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 영원한 짝사랑이다.

金 聖 佑
〈編輯委員〉

불루어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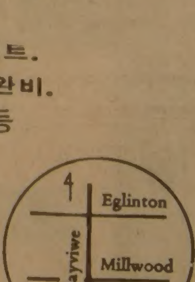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현

"세계적 盲人피아니스트되겠어요"

月末에 발표회 갖는 李在爀군

點字樂譜 모두암기

◇李在爀군이 오는30일 첫독주회를 앞두고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연습에 열중하고있다. 옆에서 지켜보는이가 어머니 金秀子씨.

피아니스트로 입신 한다는것은 여간 어려운일이아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지나는 확률이라고 극언하는 사람까지 있다. 오늘날웬만한 집치고 피아노가없는집이없고 피아노레슨을받는 어린이들의수도 수백만을 헤아린다. 타고난 재주, 피나는 연습, 투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배겨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럴 적에야 不具의 피아니스트 지망생은 얼마나더 힘이 들까. 맹인 피아니스트 李在爀군(17·국립 서울맹아학교 고교1년)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벽에 도전했다. 30일 첫 독주회를갖게 되었다. 국내에서 뿐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을얻는 맹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야심의 첫걸음이다.

李군의 어머니 金秀子씨(42·서울鍾路區玉仁洞1 78의20)는 첫아들인 在爀군이 날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자 온갖영약과명의를 찾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在爀군이 여섯살 나던 해까지 눈을뜨지못하자 金씨는 포기한채 대신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在爀군이 大成한다면 어머니의 그때 용단이 전기가 될것이다.

在爀군의 첫스승은 같은 맹인으로서 맹아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있는 金泰勇씨. 우선 점자악보를 배우고 다음에는 암기로 채르니까지 배워 나갔다. 당초 어머니金씨는 그저 소품을치며 혼자 즐기게하려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흔한 재능이 아니다』면서 피아노를 전공으로 선택하도록 권장을받자 마음을 바꾸었다. 당시만해도 아버지 李泳煥씨(전기통신공사보전국계획부장)가 국영기업체직원으로, 유복한 환경도 아니어서 레슨사례도 충분히 하지못했다. 어머니金씨는 在爀군이 피아노를 전공으로 택하면서부터 집을 佛光洞에서 아예맹아학교 근처인 玉仁洞으로 이사를했고 어려운 살림에 국산피아노도 마련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등·하교때는물론 레슨을 받으러갈때도 在爀군의 손목을 꼭붙들고 다녔다. 식구가 아들 둘뿐이어서 단출했던 탓도있지만 在爀군의 동생(13·靑雲中2년)이 오히려 형을 끔찍이 생각해주어 在爀군에게 정성을 기울일수가 있었다.

국민학교과정을 끝내자 金교사는 『자신에게서 배울게 더이상 없는것같다』면서 다른교수를추천했다. 李군이중학생이되고나서레슨을 맡아준선생은 여류피아니스트인張寶媛씨(前延大교수). 張교수마저在爀군을 가리켜『긴손가락과 나이에 비해 큰체구가 피아노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있고 집중력과 암기력이 상상할수없을 만큼 빼어나 놓치고 싶지않은 제자』라고 평할 정도로 李군은 특출한 솜씨를 보였다. 또『앞을 보지못하는 사람 특유의 특별한 청각과 감각이 있어 좋은 톤을 만들어 낸다』고도 말한다.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연주하는 제스처나 스타일에 감정을 가미하지 못해 딱딱하고 어색한 자세를 갖는점.

오는 30일하오7시 서울 世宗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있을 독주회에서 李군이연주할레퍼터리는 바하의『평균율5번』, 베토벤의『피아노소나타23번』, 리스트의『헝가리광시곡』, 쇼팽의『발라드3번』등. 모두가 어려운 곡들인 이 악곡을 점자악보로 익히고 암기해 연주장에서는 보면대(譜面臺)에 악보를 얹지않고 그대로 연주한다.

어려움에 많이울어

온家族이 지팡이되어 돌봐

張교수는 『처음 얼마동안은 피아노를 듣다가 『거긴 좀이상하다』며 레슨교수의 습관대로 보면대로눈을 돌려 악보를 보려하는데 그때마다 보면대가 텅비어 있는 것을 깨닫고는 무척 가슴이 아팠다』고한다.

在爀군이 피아노를 배운 10년간 곁에서 지켜봐주어 『피아노선생님이 다된 정도』라고 말하는 어머니도 자신이 직접 건반을 두들기진 못하지만 아들이연습할때 템포라든가 음빛깔에대해 좋은 의견을 내놓을만큼 음악을 알게됐다고 한다.

在爀군도 『피아노를 배우는동안 너무나 힘들고괴로와 몇번이나 음악을 포기, 다른 맹인학생들처럼 안마기술을 배우기로했었다』고 말한다. 모든 악보를 끊임없이 외어야하고, 왼것을 자기방법으로, 자기음악으로 소화해야하는과정이 너무나 힘이들었다.

이같은 각고(刻苦)에힘입어 지난78년에는 음악협회가 주최한콩쿠르에서 그는정상인 학생들을물리치고 金賞을 따냈고, 같은해 문교부주최 특수학교 실기대회서도 우수상을받았다.

그의 음악을 들은 평론가들은『일반음악도들은 악곡도중의 어느곳을 쳐보라고 하는경우 악보를 뒤져보며 치는데, 그는 어느부분이든 그 자리에서 다쳐보여 대단히 놀랐다』고말한다.

『어머니 다음으로 피아노를 사랑한다』는 李군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FM을 켜 음악을 듣기 시작할만큼 음악을 좋아한다.

장래계획을 묻자『외국의 음악대학에 유학, 국제적으로 유명한 맹인피아니스트가 되는것』이라고 밝혔다. 【禹桂淑기자】

鐵道옆 불량건물 모두整備

85년말까지 나무심고 騷音방지도

전국 철도주변의 불량주택과 건물이 모두 정비된다. 내무부는 9일 경부·호남선등 5개철도연변의 불량주택 5천3백76동과 불량건물 1만2천동을 정비하는것을 골자로한 철도연변 종합정비 3개년계획을 확정, 각시도에 시달했다. 총사업비 7백36억 4천5백만원을 투입,86아시아게임을앞둔 85년말까지 완료될이 계획에 따르면▲경부,호남,경춘,대구(대구—경주),동해남부선(부산—경주) 등 5개 주요철도연변의 불량주택 5천3백76동을 개량하고 불량건물 1만2천동을 보수하며 ▲철도변도로1백61㎞를 포장하고 78㎞의 하천을 정비하는한편▲철도변에 22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화원을 조성한다는것이다.

내무부는 또 철도변마을의 소음방지와 환경정화를 위해 높이 3m안팎의 차폐(遮閉)담장(총연장 2백72㎞)을 쌓고 철도변에 고물상의 신규허가를 제한키로했다.

각노선별 사업비와 주요사업은 다음과같다.

◇경부선(4백45㎞)▲사업비=3백74억3천9백만원▲주요사업=불량주택 9백28동개량, 공장시설보수 87동등

◇호남선(1백60㎞)▲사업비=1백70억3천3백만원▲사업=불량주택개량 1천3백7동등

◇경춘선(87㎞)▲사업비=51억1천2백만원▲사업=불량주택개량 3백58동등

◇대구선(대구—경주 95㎞)▲사업비=61억6천45만원▲사업=불량주택개량 4백68동등

◇동해남부선(부산—경주 88㎞)▲사업비=79억원▲사업=불량주택개량 5백73동등

"高利주마" 40億 챙겨

鎭海서 3백70여회 犯行 2명令狀

【鎭海】鎭海경찰서는 9일 1백여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사취한 趙基五씨(43·서울江東區岩寺洞2 4 6의14)와 李文枝씨(39·여·釜山東萊區長箭3洞628의66)등 2명을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崔몽호씨(32·주거부정)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79년11월부터 洪모씨(72·鎭海市余佐洞)등 1백38명으로부터 서울 M건설회사와 S토건회사등에 자본을 투자해 월5부에서 9부씩의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지난3월20일까지 모두 3백7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가로챈다음 지난달24일 달아났다가 이날 서울에서 검거됐다. 【鎭】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土地재매입사건

競賣방해혐의 밝힌듯

土開公·企業금품오간 사실도

4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재매입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9일 일부기업관계자들이 경쟁입찰을 가장,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했으며(경매방해) 토지공매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직원들과 결탁, 편의제공명목으로 금품이 오고간혐의등을 밝혀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기업관계자들이 토지재매입때 쓴 자금이 회사공금을 변태지출한 것인지를 가리기위해 수표추적을 벌인결과 이부분에 대해서도 일부기업의 혐의점을 찾아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업관계자들을 입찰방해·뇌물공여·배임증재및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토개공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혐의로 각각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아래 구속범위를 검토, 오는 11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결과 관련기업들은 토개공이 토지공매를 시작할때 단독입찰해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하기위해 기업주인척이나 회사직원을 경쟁자로 위장시켜 입찰케해 특정인에게 낙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방해했으며 이때 개인명의로 입찰했기 때문에 회사공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味元의 경우 계열회사인 내쇼날프라스틱이 지난해 8월 토개공의 공매를통해 釜山西區東大新洞의 대지 2백41평을 재매입할때 위장경쟁자로 味元 林大洪회장의 고종사촌인 金鍾圭씨(동아화섬사장)를 내세웠던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토개공 직원들이 관련기업의 내정가를 사전에 알려주었는지의 여부는 현재까지는 밝혀지지않고 있으나 공매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이 오고간 혐의점이 일부 기업의경우 밝혀진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토개공 직원들이 내정가를 사전에 알려주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추궁중이다.

폭력警官 또 令狀

韓一합섭事件관련 慶南개발직원 수사때

치안본부는 9일 한일합섭이사 金根祖씨 폭행치사사건과 관련, 치안본부수사대 羅基璋경사(38)를 독직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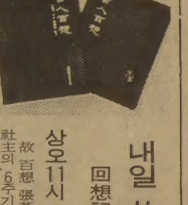
경찰에의하면 羅경사는 지난달21일 한일합섭 경매방해 혐의를 수사하기위해 이미구속된 金萬熙경위(38)와 함께 부산中區大廳洞 산장여관에서 경남개발진흥회사 직원 章晉璋씨(29)를 조사하던 중 뺨을때리는등 폭행을가했다는 것이다.

羅경사는 金根祖씨가 숨지자 한때 도피했다가 자수해와 그동안 金萬熙경위와함께 金根祖씨를 폭행한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받아왔는데 金씨에대한 폭행사실은 없었던것으로 밝혀졌다.

내일 故 張基榮社主 6周忌

回想記담은「百人百想」책자발간

상오11시 추모모임



◇百想기념사업회에서 펴낸「百人百想」。

故百想 張基榮 한국일보社主의 6주기를 맞아 고인과 생전에 인연이깊었던 전·현직 사우1백명의 회상기를 담은「百人百想」(副題 우리가 아는 張基榮社主)이 발간되었다. (비매품)

한편 6주기인 11일 상오 11시 고인의 묘지(廣州郡東部邑倉隅里黔丹山 기슭)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간소한 추모의 모임을 갖는다.

金경위 구속연장

金理事 폭행致死

韓一합섭이사 金根祖씨 폭행치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金道彦부장검사는 9일 보다정밀한 보강수사를위해 金萬熙경위의 구속기간을10일간더연장했다.

검찰은 金경위를 지난1일 치안본부로부터 송치받았는데 일요일인 10일까지 수사가 매듭지어지지않을것으로보아구속기간을연장한것이다.

共榮채무 15년상환

채권단 2차집회

李·張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법정관리로 넘어간 共榮토건(법정관리인 禹在九)의 제2·3차 채권관계인 집회가 9일상오10시 서울江南區瑞草洞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체채권관계인중 75%가량인 5백30여명이 참석, 共榮토건의 법정관리인 禹씨가 법원재판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에 제출한「채권정리계획안」을 심리한결과 의결권총액의 법정족액이상의 찬성을얻어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共榮토건이 채무액 4천5백95억7백13만3천원을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오는 2천2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되어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李圭光씨 퇴원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대법원에서 유죄가·확정된 뒤 검찰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던 전 광업진흥공사사장 李圭光씨(58)가 지난2일 그동안 입원해있던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것으로 알려졌다.

李씨는 지난달8일 대법원에서 징역1년6월·추징금1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11일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었고 지난달22일 만성췌장염등 신병을 이유로 검찰에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었다.

칼든強盜 총쏴검거

주택털어 달아나다

9일 하오1시20분께 서울 江南區論峴洞27의5 白虎奉씨(32·주식회사효산물산대표이사)집에 柳仲浩군(21·무직·京畿坡州郡州內面坡州里132)과 李宗敎군(23·무직·서울中區新堂洞45의99)등 2명이 담을넘어 침입,집을보던 가정부 2명을칼로위협, 일제 무비카메라등 1백여만원어치의물건을훔쳐달아나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 권총을발사한끝에검거했다.

文藝人의 代父

明洞 문예서림 주인 故金熙鳳씨

주먹과 돈으로 詩人·墨客 치다꺼리

급변하는 세태는 엊그제까지만해도 現場이던곳을 곧잘「古蹟」으로 만든다. 그곳을 지키던 어제의 주역에게는 어느새「역사의 증인」이란 칭호가 붙게 마련이다.

최근 작고한 金熙鳳씨(사진)가 바로 그런사람이다. 해방되던해 11월23일부터 38년간 文藝書林을 지키며 明洞의 터줏대감노릇을해온 그는 7일상오6시40분 서울龍山區龍門洞38의28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향년69세.

코스모스백화점 맞은편 2층건물 아래층에 위치한 文藝書林은 지난날 明洞의 관문이었고 이제는「明洞時代」의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서점의 주인 金씨는 바로「明洞의 수문장」이었다. 그것은 서점의 위치때문만은 아니다. 明洞時代 주역들의 안전은 물론 호주머니사정까지 보살펴준 댓가로 얻은것이다.

議政府태생으로 德壽商高를 졸업한 金씨는 해방당시로는 보기드문 유도유단자(4단)이어서 당장 明洞의「代父」로 군림했다.

그가 없었더라면 明洞의 창백한 인텔리들이 그처럼 호기를 부릴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는 깡패천국으로서의 明洞과 文化藝術로서의 明洞이 共存하게한 숨은 주역이었다.

그가 가난한 문인들을 도와준 것은 明洞時代의 전설로 너무 유명하다. 당시만해도 코피값이 없어 쩔쩔매던 문화예술인들이 돈이 급하면 달려가던곳이 文藝書林이었다. 따라서 이 서점은「文藝金庫」였다. 그는 또 시인 韓何雲을 친구인 故 崔暎海씨(正音社대표)에게 소개하여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70년대의 경제개발로 명동은 급격히 변모했다. 시인 묵객들은 사라지고 증권업자들이 활보함에 따라「銀星」과「돌체」같은 지난날의 명소도 기억속으로 사라졌다. 文藝書林의 땅값도 금값이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한달 매상 1천여만원의 책장사만을 계속해왔다. 말년에는 시력이 나빠 5m앞도 못보는 그였지만 明洞의 관문에 나와 앉아있어야 마음이 평안했다.

이제 그도 갔다. 그러나 그의 차남 性郁씨가 계속 운영할 文藝書林은 明洞시대를 증언하리라. 【梁 平기자】

국내 최대 支石墓群 南方式 발생지 입증

全北 高敞서

【全州】남방식지석묘의 발생지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석묘군이 전북 高敞郡雅山面上甲里에서 雅山지구 지석묘발굴조사단(단장 전영래)에의해 확인됐다.

무게만도 1백50톤에 이르는 이들 지석묘는 총 22기가 집결돼 있는데 이같은 대형지석묘는 국내최초의 발견이며 세계적으로 가장큰 상석을 가진 지석묘의 분포지역으로 평가되고있다.

당초 이지역은 한국전력雅山댐건설에 따른 수몰지구내 지석묘발굴조사에 의해 그규모와 학술적가치가 확인된것이다.

지석묘가 밀집돼있는 지역은 雅山面上甲里 매산리등 남쪽 산줄기로 이 지역에는 약 3백기의 지석묘가 몇기씩 무리를 이루고 있다. 국내 최대의 지석묘 22기가 있는곳은북쪽리골짜기.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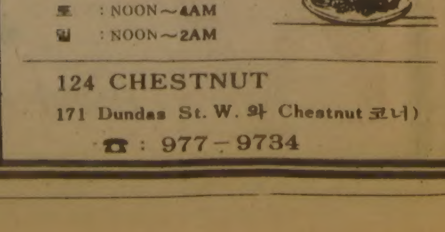
日加
주간 〈일가타임스〉
日本과 캐나다의 뉴스및 생활에 도움주는 정보를 전하는 주간신문
The Nikka Times
720 Spadina Ave.,Suite 508
Toronto, Ontario
Canada M5S 2T9
☎ 923-2819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 셜본서쪽)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1,000 씨로인 예약환영
□가수·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Toronto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어비스
한국일보 533-2361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한국일보 (특집판)

現代史의 現場 ㉓

題字 原谷 金基昇

滿洲 獨立抗日軍의 產室

新興武官학교

李會榮중심 新民會서 건립
愛國청년 3천5백명 배출

무수한 항일투쟁의 역사의 현장가운데 滿洲西間島柳河縣三源堡일대에세워졌던「新興武官學校」는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대비한 근원지였다.

지금부터 70여년전 독립투사들이 태산준령이 둘러싸이고 밀림으로 뒤덮인 황무지를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며 세운 신흥무관학교는 항일독립전쟁의 전진기지로 군사학교의 효시였다. 新民會의 망명객들이 세운 이곳 신흥무관학교에는 수없이 많은 애국청년들이 몰려들어 독립군무관양성의 대본영을 이루었다. 西間島柳河縣三源堡에서 출발, 通化縣哈泥河와 柳河縣孤山子에 분교까지 확장했던 신흥무관학교출신들은 독립군지휘관과 민족교육자가 되어 활약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어떤의미에서 현재의 사관학교의 원류라고 평가할수도있을것같다.

신흥무관학교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신민회 간부들에 의해 탄생됐다. 1909년봄 신민회간부인 李會榮 李東寧 梁起鐸 朱鎭洙 등은 비밀회의를 갖고 국내에서의 대일항쟁의 한계가 있다고판단, 滿洲에 제2의 독립운동기지를 정하고 독립전쟁을수행할 핵심간부를 양성하기위한 무관학교설립을 결의했다. 이 사업을 위해 각도의 책임자를 선정, 군자금조달을 할당하고 후보지물색에 나서기도했다. 그러나 자금조달 계획은 데라우찌(寺內正毅) 총독모살사건으로 탄압이 심해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듬해 여름 李會榮 李東寧 張裕淳등 신민회간부들은 종이 장사를 가장하고 滿洲로 떠났다. 이들은 鴨綠江을 건너 安東縣橫道川으로 들어가 그곳을 임시연락처로 정하고 李東寧의 친척이 되는 李鳳三을 그곳에 연락책으로 남게 한다.

1910년12월부터 이듬해2월까지 신민회동지들을 중심으로한 애국지사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주요인물들은 李會榮 李始榮등 6형제와 安東의 유림대표인李相龍 金昌煥 李東寧 朱鎭洙 金衡植 金東三 黃萬英 呂準 金佐鎭등을 꼽을수있다. 이들중 가장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李會榮으로 그는 장현인 健榮 둘째형 石榮 3째형哲榮과 동생인 始榮 護榮등 형제가족들을설득시켜 이주계획을 추진해갔다. 전답가옥등 전재산을 팔아 6형제가족60여명이1910년12월 차례로 이주를 해간다. 李씨일가중 둘째 李石榮은 한말 영의정으로 재산가였던李裕元의 양자로 입적, 많은재산을 물려받아 이를처분해무관학교설립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李恩淑여사(작고·李會榮선생의 부인)는 얼마전 그의 유고집「西間島始終記」에서 당시의 이주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여러형제들이 일시에협력하여 만주로떠날 채비를 했다.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부동산을 방매했는데 여러집을 한꺼번에 방매하려니 그여마나 극난하리요. 大家이니 남종여비가 무수하여 하속들의 입을 막을수 없는데다 일경의조사는심했다』

『국경인 압록강은 경찰의 경비가 철통같지만 새벽3시쯤은 안심하는 때다. 江氷에서 썰매를 타면 2시간이면 安東縣에 닿는다』

『갈수록 첩첩산중에 千峯만학은 하늘에닿을듯하고 기암괴석에 쌓인 백설이 은세계를이루었다. 강판얼음을마차가 어찌나 기차같이 달리는지…7~8일만에柳河縣橫道州에 도착하니 5간방에60여권속이 한데모여 큰잔치집같이 숨쉬거리며 며칠을 보낸다』고 술회하고있다.

이렇게 속속모여진 신민회간부들은 농토와 집을 구하며 봄을 기다려 이듬해 4월柳河縣三源堡孤山子에서 한인동포들을 모아 군중대회를 열고 耕學社를 발족시키고신흥강습소를 창설했다.

耕學社는 말그대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는 뜻으로 민간자체기구이면서 혁명단체의 성격을 띠고있었다. 新興강습소는 전통과 이념을 계승한다는 취지로「新」자와 그리고 흥왕하는 독립운동기관이 되라는 뜻으로「興」자를 붙였다고한다.

耕學社와 新興강습소는 兵農制를 실시, 근로와함께 산업교육우선주의에 바탕을둔 군사교육을 병행해나갔다.

그러나 그해 西間島지방에 큰흉년이 들어 일부혁명동지들이 沿海州나 北京·李天동지로 떠나기 시작했다. 耕學社는 흉년으로인해 운영난으로 해체되면서 같은 성격의 扶民團, 韓族會 등으로 맥을 유지해 나갔다. 이에비해 신흥강습소는 이런난관을 극복하며 점차 군사교육기관으로서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처음에 柳河縣 三源堡에서 창설됐으나 차츰 규모가 커지면서 부근 通化縣哈泥河에 보다 규모가 큰 본교를지었다. 기록에 나타난 哈泥河의 신흥학교가자리한 지형이나 편제등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哈泥河는 동쪽에 태산준령인 古磊子가 30리거리에 걸쳐 하늘을 찌를듯 솟아있고 북쪽은 심산유곡이다. 그리고 남쪽에는 長山密林으로둘러싸여있어 주위의 험준한지세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며신비경의 풍치지대다. 부근에는 波猪江이 흐르고 강북쪽 언덕에 신흥학교가 위치해있다. 학년별로 넓은강당과 교실 내무반 편집실 숙직실 식당 취사장이갖추어져있고낭하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총가(銃架)가 설치돼있다.

1913년봄 학교를 이곳으로 이전한후 수만평의 연병장과 기타시설은 모두 학생들의 손으로 마련됐다. 삽과 괭이로 험준한 고원을 평지로 만들어야 했고 좁은산길과 산턱의 돌더미를 파헤처 등으로 나르는 고된 노동을해야만했다.

신축공사는 李石榮의 재정적후원과 학생들의 피땀으로 이룩됐다. 이같은 개척사업으로 밀림속에는 이주동포들의 오두막집도 곳곳에 들어서기시작, 독립군기지로서의 기반이 점차 이루어져 가게 됐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오해가 풀리지않아 모두 중국복장을 입고다녔으며 친교를 벌이기도했다.

1913년5월 哈泥河의 신축교사의 낙성과 더불어 신흥강습소의 이름을 신흥학교라 고치고 중등정도의 교과를가르치면서 본격적인 무관을 양성하게 되었다.

학교앞을 유유히 흐르는 푸른강가에는 언제나 작은배한척이 대어있었다. 밤이되면 고기잡이 횃불이 불야성을 이루고 낮에는 뗏목이 강을 흘러간다.

당시 이곳에서 태어나 5살까지 있었다는 李圭昌씨(71·李會榮선생의 3남)는 『그곳에는 먹을것이라고는 옥수수밖에 없었다.옥수수가 얼마나 큰지 지게에 몇개 못 실었던것이 기억이난다. 훈련생들은 모두 중국복장차림을 하고 있었고 커다란 가마솥에는 항상 훈련생들의 급식을위해 옥수수를 쪘고 부녀자들은 훈련생들의 피복과 버선을 깁고 빨래하느라 항상 분주했다』고 회상했다.

1920년 폐교될때까지 본교와 분교를 통해나온 졸업생은 약3천5백명에 달했다. 이들은 제각기 구국운동대열에서 크게 활약했다. 靑山里전투에서 큰 공적을 남긴 北路軍政署의 독립장교중에는 신흥출신이 많았다.

吳祥世 白鍾烈 朴寧熙 金春植 姜華麟 崔海 李霽樹등은 북로군정서가 설치된후 金佐鎭장군의 초청으로 그곳 사관학교 (汪淸縣西大城官練成所)의 교관으로가 사관교육을 담당하다 靑山里전투에 나가 독립군전투사에 빛나는 업적을남긴 인물들이다.

1913년 현재의 신흥학교교직원명단을 보면 ▲교장=呂準▲교감=尹琦燮▲학감=李光祖▲교사=李圭鳳 徐雄 閔華國 成駿用 金興 李克▲생도대장=金昌煥▲생도반장=元秉常등이다. 또한 당시 신흥무관학교의 교가를보면 조국을잃은 한과 투혼을 불러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장백산맥 비단같은 만리낙원은/반만년래 피로찾긴 옛집이어늘/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맡기고/종 설움받는이 뉘뇨/(후렴) 우리 우리 배달나라에/우리 우리 자손들아/가슴치고 눈물뿌려 통곡하여라/지옥의 쇳물이 온다』

신흥학교의 학제는 4년제의 본과제와 장교반(6개월) 하사관반(3개월) 특별반(1개월)을 두고 하루수업시간은 14시간. 그 가운데는 학과10% 교련20% 민족정신50% 전술20%의 비율. 군사교육외에 본과에서가르친 교과목은▲중등교과산술▲국어문전▲고등소학독본▲최신고등학이과서▲교육학▲대한지리지▲윤리학 ▲보통경제학 ▲新選博物學 ▲新選現代學 ▲중등생리학등으로 높은수준의 교육을 시키고있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학교창설직후에는 교직원학생이 일종의 동창회성격같은 신흥학우단을 조직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 혁명청년들의 결사로 조기만주독립운동의 핵심조직으로 활약하기도했다.

한편 신흥학교졸업생들은 교칙에 따라 2년간은 모교가 지정해주는 임무를 의무적으로 복무했다. 이들은 일선독립군으로 나가는 외에도 이주동포들이세운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졸업기를 앞두고 학생들은 지방으로 동포들의 계몽을 위해 떠났다.

3·1운동직후인 1919년4월에는 柳河縣孤山子로 옮긴후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게된다. 3·1운동을 전후해서는 국내외의 수많은 청년들이 哈泥河의 학교로 몰려들어 학교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게됐다. 신흥학교의 제3분교로 柳河縣孤山子에 넓은부지를 택하여 40여칸의 병영사와 수만평의 연병장을 준비했다. 이때는 일군장교로 있던 李靑天이 일본을 탈출하여 이곳으로 망명을 왔다. 당시의 교직원은 교장 李天民, 교감 尹琦燮, 교관 李靑天 李範奭 吳光鮮 成駿用 元秉常 李章寧 金成魯등이 있었다.

근대식군사교육을 받은 李靑天이 전략전술이론을 가르쳐 더욱 강력한 군사훈련기관으로 발전해갔다. 3·1운동직후에는 개교이래 최고의 인원으로 증가, 17세에서 50여세까지 한학년의 인원수는 무려 6백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3·1운동직후 일제의 단말마적인 무력탄압과 아울러 일제의 압력으로 중국관헌의 박해도 날로 심해졌다.

또한 마적단의 노략질도 심해져갔다. 1920년7월에는 마적단의 야간기습을받아 교감尹琦燮 교관朴寧熙을 비롯하여 사관생수명이 납치되는사건이 일어나고 학생들간의 지방색으로인한 파벌싸움으로 살인사건까지 겹친다. 신흥무관학교는 점차 폐교의 비운이 닥쳐왔다. 李靑天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관생도들을 敎成隊로 편성하여 이들을 데리고 장백산으로 들어가 재기를 모색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 李靑天이 거느리고있던 사관생도는 약3백여명이었는데 이들은 安圖縣에서洪範圖독립군부대로부터 약간의 총을 받아 무장하게됐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8월폐교됐다. 【林承茂기자】

◇友堂 李會榮선생의 생전의 모습.

◇通化縣哈泥河의 신흥무관학교학생들이 황무지를 개간하고있는 모습。

抗日·民族의식의 求心地

民族史觀·共和政體 고취로 해방후 指導者도 길러

朴永錫 <建國大교수·韓國史>

韓國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滿洲는 20세기 전반기 일제의 침탈로부터 이탈하고자하는 한국인 독립운동자들에게는 최적의 망명처이자 그 항일민족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동시에 고도의 농업기술을 지닌 한국인 이주민이 광활한 이곳 평원에서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함으로 인하여 그 항일투쟁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력기반마저 마련하였던 곳이었다.

당시 在滿韓人은 전체 국 인구의 약 20분의 1에 해당하는 1백만명을 호칭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滿洲의 한국인사회는 일제의 침략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민족독립운동에 있어서 志士들의 據點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좀더 유의할 것은 이곳 한인사회단체가 그수적인 면에서나그들스스로가 한국인의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점에서 볼때 민족사의 단절기나 다름없는일제의 지배통치기에 있어서보다 진정한 한민족사의 맥락을 계승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 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하여 한국이 강점되자,위정척사사상에 바탕을 두고 주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던 일부 세력은 국외로 망명하여 復辟的民族主義運動을 계속하는 면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개화파,독립협회의 맥락을계승해 온 계열과 義兵의 일부가 참여한 新民會계열은 專制君主制를 부인하고 共和政體를 주장하는 共和的民族主義의 입장에서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들新民會 간부들은 1909년봄 서울의 梁起鐸家에서 수차에걸쳐 회합하여 일제의 한국강점이 임박하고 있는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검토하고 新民會가 당면과제로 추진해야할 문제를 논의한결과 국내항일투쟁의 한계성을 절감하고 해외로 독립운동기지를 옮겨 독립군을 창설하고 독립군양성을 위해서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기회가오면 그들이 양성한 독립군을 독립전쟁에 동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滿洲 遼寧省柳河縣三源堡에 집결하여 1911년4월에 항일민족 독립운동자들의 露天군중대회를 열고 여기서 최초로 항일혁명단체인 동시에 在滿韓人의 자치기관인 성격을지닌 耕學社를 창립하였으며 그 부설기관으로 新興講習所(新興武官學校의 前身)를 설립하였다.

이들 공화적민족주의계열은 그후 耕學社, 扶民團, 韓族會, 軍政府, 西路軍政署, 大韓統軍府, 大韓統義府, 正義府, 革新議會 또는 國民府등으로 그 맥락을 이어 가면서 新興講習所를 新興中學校로, 그리고 1919년에는 다시 新興武官學校로 개편, 발전시켜갔다. 그러나 1920년 8월에는 新興武官學校 자체내에서 尹致國치사사건등 불행한 일도 있었고, 그후 일본군의 滿洲출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李靑天將軍의 인솔하에 安圖縣 삼림지대로 전략상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그곳에서는 다시 대한독립군의 洪範圖장군과 합류하였으며, 靑山里대전쟁후의 일본군의 대토벌작전으로 다시 불가피하게 密山으로 이동하여 大韓獨立軍團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제 이 신흥무관학교가 한민족독립운동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업적과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학교출신은 대개가 滿洲 露領地域은 물론 中國·국내 등에서 항일민족독립운동단체와 항일독립군의 간부가 되었고, 일부는 재만韓人社會의 민족학교를 스스로 설립하여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항일독립운동자(독립군및 독립운동자)의 인적자원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된이후에도 새로운 민주국가건설에 크게 기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新興武官學校 제1회 졸업생인 卞榮泰의 활동같은 것도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로 이학교는 한상대표적인 항일민족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집합처가 되어 (李相龍 李會榮 李石榮 李東寧 尹琦燮 金昌煥 李靑天 金擊天 申八均 李範奭 金東三 李沰 呂準등) 항일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방략과 독립전쟁의 전략전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후일 北路軍政署의 速成士官學校는 군사학 교재를 新興武官學校에서 가져가기도 하였다.

세째 이곳 출신들은 직접 항일독립전쟁을 수행하기로 하였던것으로 이곳출신인 李章寧(北路軍政署 參謀長)李範奭 姜華麟 白鍾烈등이 중심이된 北路軍政署의 靑山里전쟁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네째로, 이 학교에는 학자와 관료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에 의하여 특히 한국사의 연구가 크게 진척되어 주체적인 민족사관의 정립에도 기여한바 크다.

끝으로 新興武官學校는 이곳에 모인 인사들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共和政體를 가장 먼저 제창하여 근대적민족국가건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민족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군사적으로 독립군을 육성하여 실제로 독립전쟁을 전개함으로써 한민족에게 일제로부터 조국의 광복을 쟁취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하였던점을 들수 있다.

그러나 新興武官學校 또한 그 운영에 있어서 內外로 많은 한계점을 지니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中國의 영토내에서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그 활동에 많은 한계성이 있었다.

즉 中國東北地方軍閥의 지배와 日本領事館의 간섭그리고 日帝의 밀정(친일한국인)등 3·4중의 감시가 있었고, 생존의 문제로서 土地商租權問題, 이중국적문제, 경찰권문제등의 해결을 위해 對中교섭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항일독립운동의 방략상 때로는 교육·산업우선주의와 군사우선주의의 意見차이로 상호대립하는 일도 있었다.

滿洲지역에서 활약한 독립군이 후일 上海임시정부의 光復軍으로 계승되었으며 그 전통은 또한 大韓民國 國軍이 이를 계승하였다.

끝으로 한가지 첨언하고자 하는것은 新興武官學校를 처음부터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李會榮·李石榮·李始榮의 공헌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모든 재력을 털어 [illegible]하여 新興武官學校의 창립에 기초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海外토픽

罪人3명 속옷脫出 看守감방에 가두고

섭씨4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3명의 죄수가 속옷바람으로 탈출하는 과감성(?)을 보였다고.

美일리노이州 와바시보안관대리들은 이들3명의 죄수들이 연노란색의 죄수복을 벗어던진채 속옷바람으로 1명의 간수를실신시킨뒤 그들의 감방에감금하고 탈출했다고 설명.

이들3명의 죄수들은 모두 강간및 유괴 강도 절도등의 혐의로 재판을받기위해 수감되어 있었다고.【UPI】

赤治下보다 核戰을 美國市民 여론조사

美매사추세츠 주민 7백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거의 절반정도가 공산당치하에서 사느니 핵전쟁을 택하겠다고 응답한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정책연구센터가 5일 공개한 이여론조사는 하버드大등 3개대학 공동조사연구센터가 지난 1월중순~3월에걸쳐 실시한것으로 『전면 핵전과 공산정권중 양자택일을 해야한다면 어느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핵전이 49%, 공산정권이 40%, 모르겠다가 11%로 나타났다.

또한 『전면핵전발발시 적국및 기타 여러나라는 물론 미국국민들도 모두 죽게된다면 어느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무려 33%가 핵전이라고 응답했다.【AP】

39세의 中共기술자 최연소市長에 피선

리·창춘이라는 39세난 기술자가 최근 중공사상 최연소나이로 遼寧省의 沈阳市시장에 선출되었다.

관영新華社통신은 8일 沈阳市부시장겸 공산당위원회 부서기인 리가 沈阳市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새시장에 선출되었으며, 같은 기술자출신인 尉健行도 하르빈(哈爾濱) 시장에 선출되었다고 보도.

이통신은 이어 리는 지난 50년대에 소련에서 교육받았으며 하르빈시당부서기로 일해왔다고 부연했는데 이같은 인사는 앞으로 중공이 기술관료의 대담한 발탁을 예고하는것으로 보인다.【AP】

日人3명중 2명 老後생활을 걱정

일본인들은 사회가 급변하고있어 3명중 2명꼴로 자신들의 老後생활을 걱정하고 있다는것.

일본수상실이 지난해 10월 20세이상의 남녀3천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67%가 노후생활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0~50대에서는 70%라는 높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편 응답자중 75%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을 표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노인들을 위한 연금과 의료혜택및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것.【[illegible]】

풀어놓은 밧줄엉켜 킹콩풍선 墜落사고

킹콩모양의 대형풍선을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꼭대기에 달려는 시도가 풍선을 잡고있는 밧줄이 엉키는 바람에 좌절되고 말았다고.

영화 킹콩에서는 거대한 고릴라가 미인의 비명때문에 떨어져 죽지만 이날 풍선 킹콩은 부주의하게 풀어놓은 밧줄이 엉켜서 떨어지게됐다고.

◇自殺미수 이후 키夫婦 지난달24일 자살을 기도한것으로 알려진 구엔·카오·키 前越南수상의부인 키여사 (가운데) 가 8일 남편 키前수상과 함께 필리핀대통령관저를 예방, 퍼스트 레이디 마르코스·이멜다여사와 담소하고 있다. 【마닐라9日UPI電送=聯合】

땅끝에서 오다 <27>

金成一 作 宋龍 畵

뭔가 일어난다 ⑩

나리따 공항으로 향하는 입준호는 제법 으쓱한 기분이었다. 두사람의 일본인 직원을 포함한 세명의 지사직원이 그를 나리따 공항까지 호송하고 있었기때문이었다. 파리지사의 직원 세명이 이세원부장을 샤를·드골 공항까지 호송했다는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

지사장과 간부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준호는 그것을 이세원부장의 수법대로 브리프 케이스에다 넣지않고 수트케이스에다 넣었다. 중요한 것일수록 아무렇게나 둔다는 저 유명한 에드거·앨런·포의 「도난당한 편지」식 수법이었다.

나리따 공항까지는 싱거울만큼 평온 하였다.

『놈들이 하야시상의 태권도에 질려버린 모양이로군』

앞자리에 타고 있던 요꼬야마가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준호도 따라서 웃으며

『히도고로시(15-64) 넘버를 주의해야 돼』

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의 기분은 오래간만에 서울로 간다는 것 때문에 다소 들떠 있었던 것이다.

『요꼬야마상, 서울 본사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야해. 만일 내가 납치되면 김포공항에서 내 수트 케이스를 찾아야 한다구』

그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나리따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실은 그들의 눈 모두가 보이지 않는 미행자를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체크 인을 하고 보딩 패스를 받았다. 브리프케이스 하나만 홀가분하게 들고 그는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읍니다』

『천, 천만에. 디파처 게이트로 나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한다구』

그들은 마침내 디파처 게이트 앞에서 작별했다. 요꼬야마가 또 웃으면서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세원 부장도 디파처 게이트에 들어간후에 없어졌어요』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요꼬야마상 꿈에 나타날게』

그는 손을 흔들어보이고는 디파처 게이트로 들어섰다. 시큐어리티 체크와 출국수속을 끝낸후 그는 KE 001 탑승구인 33번 게이트 앞의 대합실의자에 앉아 코트주머니에 구겨넣고있던 요미우리 신문을 꺼내어서 펴들었다. 요미우리 석간은 새해 흥미기사로서 노스트라다무스 연구가인 고도벤(五島勉)과의 인터뷰내용을 싣고 있었다.

『82년…뭔가 일어난다』

큼직하게 뽑은 타이틀은 그랬다.

20세기가 그 마지막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게 되자 지구 사람들은 다시 막연한 종말론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서기 999년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떨다가 그해·12월31일 자정이 지나자 모두들 축배를들며 안도했다고 한듯이 지금 지구는 사뭇 그런 분위기였다. 거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것이 소위 대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하고 있다는 고도벤이란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82년에는 혹성직렬현상이 일어나고, 이상기온현상이 일어나고, 우박이 내리며,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이란등에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종교서관

개업 4주년 기념세일안내

할렐루야!

개업 4주년을 맞아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과 여러분, 그리고 교민들께 그동안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애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저희 서점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문서복음사업에 정진하려고 다짐하오며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승리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Sale 기간 : 4월1일～30일

★품목 : 성화, 성가테입, 설교테입, 성경, 성경주석, 기독교서적, 소설, 전집류, 사전

◆설교테입◆

김남수목사 박조준목사
김충기목사 박회민목사
김의환목사 조창환목사
김창인목사 홍순관목사
김형태목사 홍반식목사
김홍도목사 이상훈목사
강달희목사 임택진목사
고원용목사 한경직목사
신예철목사 한기원목사
표지현전도사 한진관목사
김형석교수 최복규목사
이인수집사 최자실목사
안이숙선생

◆조용기목사 강해집테입◆

다니엘서 강해 8개
요한계시록 강해 10개
주기도문 강해 6개
팔복(산상보훈) 강해 3개
빌립보서 강해 8개
에베소서 강해 8개
갈라디아서 강해 8개
히브리서 강해 12개
고린도전서 강해 20개
로마서 강해 18개
목회세미나 6개
구역장세미나
설교테입 수백종

◆영어설교테입◆

조용기목사 굳메일목사
김충기목사 안이숙선생
로버트 슐러목사 빌 왁스 영어설교

◆기타◆

곽규석장로간증
허림집사간증
이동원목사 새생활세미나
할렐루야 아줌마(최자실목사 목회여화)
천로역정강화(이성봉목사)
성경낭독
영어회화
각종성가
빌 왁스 간증
요한계시록 해설드라마

종교서관

714 Bloor St. W.
<아리랑 하우스옆>
☎ : 535－1920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THE KOREA TIMES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파트타임 스토어 헬퍼 구함.
유경험자원함. 남녀불문.
전화 : 691-3666. Mr. 리.

파트타임, 샐러드 만드실분 구함.
9:00a.m.~1:00p.m. 주6일 경험 필요없음.
전화 : 421-9144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여자분 원함. 다운타운지역.
전화 : 925-0339

Video Movie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함. 영어와 한국어 잘 하시는 분. (Warden & Sheppard 지역)
전화: (B)494-7830, (R)925-1331(밤)

2살 이상인 애기 봐드립니다.
정원이 넓어서 애기 놀기 좋음.
전화 : 745-0939 Mrs. 정

가게 맡아서 하실분.
주매상 현재 2천불. (더 올릴 수 있음) Rent $200
전화 : 691-4426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급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221 Ellesmere Rd.(Warden 서쪽)
전화 : 444-2211 Hamamoto Japanese Restaurant

꽃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남자헬퍼 구함.
전화 : 485-9419

◉ 사 원 모 집 ◉
무역사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여건 : 대학졸업자.
* 무역실무경험. 영어능통. 남·녀사원.
* Start 년봉 25,000불
Call : 677-4749. PENDRITH CO.

Dishwasher 구함.
오전 11:30~오후2:30. 월-금요일
전화: 421-6016. (오후 2시반 이후)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헬퍼 1명. 주말 파타임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Tor.

---

2 Bed Rm. 아파트에 룸메이트 구함.
학생 또는 직장인 원함. 스카보로 지역. 월: $100
전화 : 266-6064 (오전중)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6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CHARGEX VISA master charge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 (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인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한국 전통의 고가구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저녁7시부터 9시까지)
전화 : 248-6531 Mr. 김

Bakery-버라이어티 Plaza
Eglinton-HWY 427. $100,000다운. 완전장비갖춤.
9,000Sq. fit. 전화: 787-1626. 저녁781-3593

일본음식점 매매.(건강이 좋지 않아서) 좋은 바겐. 가격이 다시 내렸음. 좋은 장소. 좋은 리스. 46 Seats. 술 라이선스. Bar 카운터. 전화 : 221-1621. 826-7676 메니저

금고를 이용하세요!!
*완전써비스 *각종모델 *100불부터 보험가입
*자세한 사항은 690-8950 David

Food Store.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드라이크리닝 & Laundry 완전 도구 매매
전화 : 593-5454, 276-7245 Mr. Angelo

비데오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모든 종류 있음
가격: 대당 $1,700
전화 : 924-559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건물포함) 주매상 $6,000
전화 : 1-547-0841 Mr. 조

그로서리가게 매매. $15,000. 다운타운 지역.
적은 렌트. 긴 리스. 매상오를 가능성이 많음.
Well Realty Inc. 전화 : 596-8170 Mr. Tong

3개월 사용된 선반달린
20 ft. Vegetable Cooler 급매
전화 : 421-6880 Mr. 리

---

(1)주택 2 Bedroom Yonge/Lawrence $91,900
(2)주택 4 Bedroom Yonge/Eglinton $189,000
(3)주택 4 Bedroom Keele/Finch $179,000
(4)주택 2 Bedroom Eglinton/Marlee $67,900
(5)Store+3 Bedroom Queen/Parliament $169,000
(6)Store+3 Bedroom Queen/Leslie $99,900
(7)한국식품+그로서리 HWY 427/Rathburn $49,000
(8)Fish Chips Dufferin Mall $24,900
Canada Permanent Trus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 임대. Large 1 Bed Room.
수영장, 사우나있는 고급 아파트.
$410/Month. Mr. 리. 전화 : 836-6072

베츨러 Sublet
전망좋음.. 즉시 입주 가능. 월$319
전화 : 533-8197. King & Dufferin

---

4 Bed Rm 하우스 렌트
스카보로 동쪽끝. 6월말에 입주 가능
전화 : 282-8066 Mr 리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충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수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립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쉐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도산매 전문
—원로 중국 한의사 봉사. —보약재 할인판매
55 KENSINGTON AVE(쥬이시 시장내)(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